

FTKorea Research Center



City of Seoul, Office of Research Center

‘청년교류사업 신규분야모델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 청년평화경제분야를 중심으로’

2019.12.

Submitted to:

청년청
서울시

Submitted by:

고두환
공감만세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층 4층 414C

연구총괄 고두환, 조우석
연구 이탁연, 강초룡

FTKorea Research Center는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Fair Travel Korea} 내 연구센터의 명칭입니다.

목차

1. 연구개요	3
1) 연구개요	3
2) 교류협력 사업의 일반적 필요성	6
3) 연구방법	10
4) 보고서 구성	11
2. 남북교류 사업 개괄	12
1) 남북교류 개괄	12
2) 서울시 대북협력사업 사례	17
3) 지자체별 대북협력사업 사례	20
4) 금강산, 개성 관광	23
5) 개성공단	27
6) 남북교류 평가: 성과와 한계	28
3. 남북교류 사업 제약조건	32
4. 평화경제 사업방향	34
5. 청년교류사업 신규분야 모델	38
1) 설문조사 결과	38
2) 인터뷰 결과	37
6. 결론	60
1) 인터뷰 소결	60
2) 제안	67
참고문헌	70

‘청년교류사업 신규분야모델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 청년평화경제분야를 중심으로 -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새로운 동북아시아, 한반도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통일과 남북협력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 발굴이 필요. 특히, 사회적경제와 공정여행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혁신과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며 남북한 공동의 지속가능성장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 및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 모델에 대한 조사가 필요
 - 현재의 청년들은 분단세대이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의 주체임. 현재 분단의 상황이 극적으로 해결되어 통일의 방향으로 급선회하든 남과 북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평화체제로 연착륙하든 이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세대 중 하나가 청년
 - 2017년 문재인 정부 이전 10년 간 남북교류는 중단과 단절의 시기. 금강산 관광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과 이로 인한 금강산 관광중단, 북핵실험에 의한 세계적 차원의 대북제재, 524조치로 인한 남북교류 단절 등의 역사. 즉 98년 이후 2008년까지 확대되어 오던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평화경제분야로의 진입이 사실상 제한
 - 즉, 남북교류가 전면중단되면서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이 사실상 불가해지면서 청년들이 평화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
 - 2017년 대북제재의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을 ‘투 트랙’으로 이원화. 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되, 남북관계는 개선하겠다는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을 기본 노선으로 함. 이에 따라 민간교류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확대해보려고 노력 중
 - 특히 북한 사회경제가 이전과 다르게 급격히 변화하면서 대북교류의 영역과 방식이 매우 다채로워지고 있음. 예를 들어 싱가포르 청년들이 현재 북한 내 스타트업 창업과 인큐베이팅을 ‘전담’하고 있다거나 초기 수주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 내에서 원격의료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 또한 남한의 예산을 뛰어넘는 수준의 시설/설비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보다 고도화된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교류의 필요성 등이 증가하는 추세

-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바깥세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북한 청년들, 외국의 선진기술/자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북한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교류 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체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종사자, 관계자들이 평화통일, 남북교류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높은지, 그리고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은 어떤 것이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고 할 경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 실태 조사 추진
- 서울시를 포함한 및 정부기관의 남북교류 관련 청년참여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실태조사는 기획되었음. 전분야에 걸친 대규모 조사연구를 하기에는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시간 및 예산상 제약도 있기 때문에 본 실태조사는 청년들이 참여 가능한 평화경제 분야의 신규 모델 설립과 관련하여 참여 가능성, 관심,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 등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 조사팀이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사회적경제 분야: 환경, 4차산업 및 메이커, 사회적금융, 사회주택, 6차 산업기반 먹거리, 의료생협,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및 관련 벤처캐피탈, 교육, 커뮤니티 케어 등 북한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시장이나 기업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를 발굴
 - 공정여행: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관광이지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즉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관광 분야에서의 대북사업 참여가 높지 않음
 - *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었지만 제주도의 지역경제성장을 및 관광산업 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 세계적 관광지인 바르셀로나도 서울도 마찬가지 상황.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서 공정여행을 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제주 2013 제주도민 고용 -1.6%, 2017년부터 관광산업성장률 -6.1%)
 - 국제개발 분야: 남북교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인도지원을 포함한 북한 개발은 일반적인 국제개발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 이런 측면에서 국제개발 사업 참여 및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국제개발 분야의 기관이나 활동가들은 남북교류, 평화통일 분야에서 역량 있는 주체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참고] 2010년 이후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평화통일 관련 연구용역 리스트

No	용역명	발주기관
1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 교류사업 가능성과 효과	성남시
2	한반도 남북역사문화협력 중심벨트 개념화 및 구축 연구	통일부
3	남북한 문화예술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정책기획위원회
4	남북 기상지진분야 연구개발 협력방안 연구	기상청
5	통일, 북한정보센터 설치, 운영 방안 연구	통일부
6	남북 방송통신 교류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7	나진-녹둔도 이순신 유적지 남북러 공동조사 방안 연구	통일부
8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9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통일부
10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 발전전략	통일부
11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 특구전략에 관한 연구	통일부
12	고양시 남북체육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고양시
13	남북 농업협력사업 표준모델(시설재배, 양돈장 조성) 개발	통일부
14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통일부
15	남북산림협력 표준모델 연구	통일부
16	통일대비 남북한 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통일부
17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방식을 고려한 남북 경험방안 연구	통일부
18	북한 질병통제관리체계 구축 방안	통일부
19	성남시 남북교류 협력 추진방안	성남시
20	남북겨레문화원 건립 기본구상 추진방향 연구	통일부
21	인천광역시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통일부
22	북한과 GTI 경제협력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23	북한 시장화 지원방안-내수 자영업자 육성방안	홈페이지 오류
24	남북 스포츠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집중과제	통일부
25	통일대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6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 분석을 통한 협력 이슈 발굴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북한 건설, 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용역	국토교통부
28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통일부
29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비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부
30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방안	통일부
31	남북중 3 각 협력 모델 연구: 신의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32	유엔 기후변화 대응매커니즘을 활용한 남북 경험 방안 연구	통일부
33	임농복합경영 중심의 북한 산림녹화계획 연구	통일부
34	통일 후 북한기업의 구조개편 추진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35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 방안	통일부
36	북한 산림생태 및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림수종 선정	산림청
37	방송통신분야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38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북한 국제문화교류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4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통일부
41	남북청소년 교류 추진방향 연구	통일부
42	남북방송통신 간접교류 협력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43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식량수급량 변화추이와 영양지원 정책방향 연구	통일부
44	북한 통계분야 지원 및 협력 방안	통계청
45	남북교류협력과 연천군 발전방안	연천군
46	남북물류 중심도시로서의 고양시의 비전과 역할	고양시
47	북한 농업 및 경공업 남북협력방안 연구	경기도
48	경기도의 북한 농업 및 경공업 남북협력방안 연구	경기도
49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50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해외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51	패키지형 남북농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방안 -지역별 접근-	농림축산식품부
52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국토교통부
53	북한강 상류지역의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녹색성장위원회
54	3대 북한변화 구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통일부
55	문화마케팅을 통한 대북 홍보전략 연구	통일부
56	통일 및 북한 인식 문제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통일부
57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체계	통일부
58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과 추진현황	통일부
59	동독지역 농업재편과정 분석과 남북한 농업통합대책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 교류협력 사업의 일반적 필요성

- 독일의 경우, 통일 20년이 지난 후에도 동서독의 사회문화통합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재의 불평등 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동독 주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이등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음. 서독 정부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연됨으로써 통일 20년 후에도 불만이 표출
 - 독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2005년 서독 주민들의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독 주민들은 3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구동독 주민들은 1990년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997년에는 22%로 낮아짐

- 2009년 독일 알렌스바흐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지역 주민 63%가 서독 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을 더 느낀다고 응답. 2008년 실시된 베를린-브란덴 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22%만이 자신을 실질적인 독일인이라고 응답
-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중교류 방향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음. 이는 아래의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됨
 - 첫째,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문화적 교류에서의 상대적 개방성.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남한의 문화를 제국주의적 문화, 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용/교류를 거부. 반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없음
 - 둘째, 북중간 물적인적교류의 절대량의 증가 및 편중.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북한 내 전분야에서 중국 의존도 또는 중국 집중도가 급격하게 증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중 관광 분야. 2005년 2005년 연인원 35만 명에 불과했던 백두산의 중국 지역 관광객 수는 2011년 140만명, 2012년 167만명, 2013년 157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¹⁸⁾는 보도도 있음. BBC에 따르면, 북한과 접한 지역인 백두산 이외의 북한 내륙 지방을 여행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8년 120만 명으로 증가

그림 1 단동 출입국관리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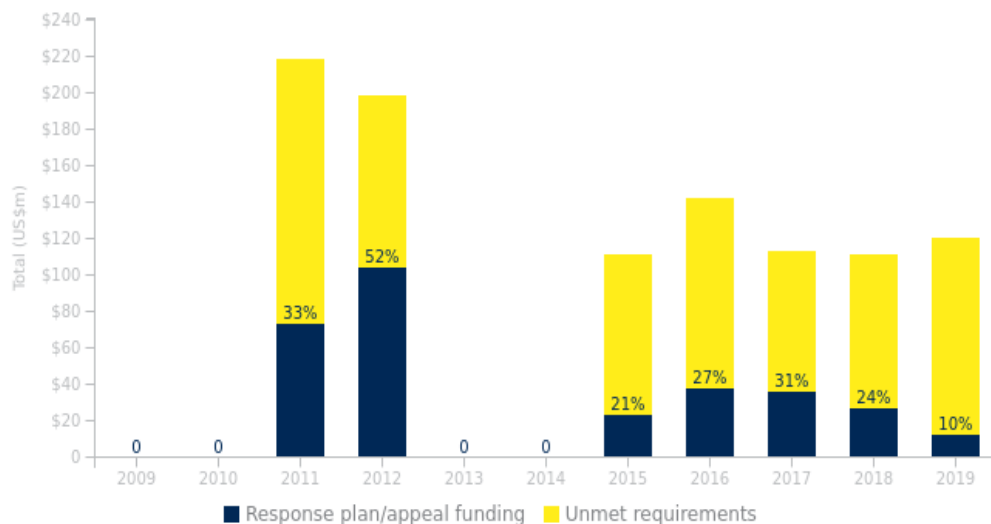


*북한관광비자 받는 단동 출입국관리소(2019.5.24 오전6시). 오후가 되면 줄이 길어서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

- 북한 내 생활인프라 또는 인도지원의 수요 충족
 - 인도적 지원의 경우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지원이 2조4천억 원, 민간지원이 9,000억 원

- 당국의 지원: 당국의 직접지원이 1.1조 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2,744억 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이 1,177억 원이며 식량차관형태로 당국이 지원한 것이 8,728억 원. 이 중 당국에 의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이 각각 1조1천억 원과 7,870여 억 원으로 전체의 78.6%로 다수(국제기구에 제공한 것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로 식량 및 비료 지원이 전체의 80~90%)
- 민간지원: 1999년 66억 원으로 시작해서 2000년 273억, 2004년 1,117억원으로 정점. 이후 2007년까지 700~800억 규모를 유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 51억 원, 2017년 11억 원(1건)으로 감소. 작년에 재개된 것이 65억 원(13건)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지원 총액 대비 실제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 비율은 전체의 20~30% 수준(2015~2018 기준)
 -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품목들은 식량, 위생, 보건의료, 건강 등 기본 물자에 제한되고 있음
- 북한 생활 인프라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방안 모색은 북한경제 회생 지원과 내수기업 육성은 물론, 보건 위생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함.

그림 2 2019 북한의 요구사항 및 불충족 요구



출처: UNOCHA 통계

[북한 생활인프라 현황]

- 2001년 상수도를 통한 물 공급이 1994년 86%에서 1996년 53%로 감소. 현재는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 북한은 재래식 우물로 식수를 보충하는데 하수처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오염원들이 지하수로 유입돼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됨
- 북한의 하수도는 각종 오수(사람의 분뇨와 생활오수)와 산업폐수의 방류구 기능을 함. 이는 식수를 오염시켜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훼손 요인. 약 80%의 분뇨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북한의 농촌지역 주택용 연료는 석탄과 나무이나 산간지역에서는 나무가 주연료. 식량난으로 인한 경사지 개간과 함께 땃감용 나무 채취는 심각한 수준의 황폐산지 문제를 일으킴
- 북한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부족하고 상당수 주택이 노후화돼 주민 주거수준은 매우 열악함.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에서 다수를 차지. 총주택의 65%인 280만 호가 노후주택일 것으로 추정.
- 북한의 보건의료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짐. 절대수에서 부족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노후. 소독문제, 전기 문제는 시급한 문제. 예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진료소는 흙 담벼락으로 지어졌으며, 의료기기들은 1960년대 소련에서 들여옴. 장기간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결핍에 의한 면역기능 저하와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에서 기인한 전염병은 영아 사망률을 높이고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출처: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방안(현대경제연구원, 2014)

- 북한주민 전체 생활이 매우 어렵지는 않음. 2019년 북한의 '인민소비품전시회'에 출품된 제품의 수는 38만 5,700점. 출품된 제품 중 북한 내 브랜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다수이며, 제품 다양화도 상당한 수준

그림 3 평양 과학자거리(왼)와 대성백화점(우)



3) 연구 방법

[문헌조사]

- 국내 남북 평화경제 또는 사회문화교류 사업 관련 주요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 통일부, 서울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취합
- 국내, 북한, 독일, 싱가포르등 사례 조사

[개별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 평화경제 및 남북교류에 관심 또는 경험이 있는 청년, 전문가, 해외 활동가 33명을 대상으로 진행
 - 각 인터뷰는 30분~2시간 정도 소요됐으며, 인터뷰가 끝난 직후 설문조사 실시
- 설문지 기반으로 정량조사 실시. 응답률이 낮은 문항 중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구성
 - 설문지는 크게 활동경험(활동 주요분야, 활동평가 등)과 활동의향(희망 사업분야, 개발정도, 필요 선결조건) 두 가지로 구성
- 인터뷰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대북사업과 정부가 지원해야 할 조건 파악
 - 인터뷰는 참여경험과 소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사례, 사업 아이디어, 청년 참여방안, 원칙 등을 위주로 함

4) 보고서 구성

-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 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교류협력 사업의 일반적 필요성, 연구방법 등을 다룸. 특히 새로운 주체가 왜 필요하고 본 실태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술
- 2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교류의 역사와 특징, 현황 등을 기술. 1998년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시작으로 개시된 민간교류 사업의 특징과 현황 등 정리. 서울시의 대북협력사업 사례와 지자체 별 교류사업 현황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경제협력 사업으로서 금강산 및 개성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분석. 또한, 기존 남북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
- 3장과 4장에서는 남북교류 사업의 제약조건 및 평화경제 사업의 방향을 기술. 중요한 원칙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서술함
- 5 장에서는 인터뷰 주요 결과를 기술. 청년 2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33 명의 인터뷰/FGI 를 요약하면서 각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희망 사업과 필요한 정책을 추가. 희망 사업으로 ①4 차산업 지구 형성, ②남북 공동공간 조성, ③여행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④교육 서비스 사업, ⑤슈퍼 그리드, ⑥북한 협동조합 및 시장 활용, ⑦북한청년을 지역전문가로 육성, ⑧평화 관련 예술사업, ⑨평화 관련 문화사업, ⑩남한지역 통일 관련 사업이 있었음. 정부가 제공해야할 지원 또는 선결사업으로 ①안정적 토대 마련, ②벤처 운용방식 적용, ③통일 및 평화 관련 교육 진행, ④재미와 이익 보장, ⑤태도 및 제도적 준비가 있음
- 6 장에서는 결론으로 실태조사 전체 내용을 정리.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 꾸준하고 길게 신뢰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추진, 북한과의 교류나 통일도 중요하지만 남한 내에서의 교류와 평화, 아시아 전체 관점에서의 평화교류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됨. 특히, 리스크가 큰 평화경제 사업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평화경제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가치,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옴. 평화에도 기획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평화경제를 추진할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재미있는 기획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평화교류 사업을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개인적 경험과 연관된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평화경제를 담당할 청년 인재/주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음. 평화경제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 것인지, 그리고 교류모델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방향에 대한 의견들도 정리함.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 특성이 반영된 평화경제 사업 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고 서울시에 대한 제안과 기대를 정리.

2. 남북교류 사업 개괄

1) 남북교류 개괄

-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남북문화교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 최초 남북문화교류는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으로 알려짐. 1990년대 해빙모드에 들어서 공연, 전시, 학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이 시작됨¹
- 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문화교류 양상은 체제우월성 선전을 위한 전시성 교류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류가 대부분
 - 주로 북측에서 남측에 사회문화교류를 제안했으나 이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의 선전성 제안의 성격이 짙음. 가장 대표적인 제안은 1957년 남북 언론인 교류, 제17차 이탈리아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1966년 기자 및 과학자 교류 등
 -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는 1980년대 들어 남북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사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1985)이 첫 번째 사례
 - 1988년 남한정부의 ‘7.7특별선언’과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한기본합의서)>의 체결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음
 - 남북한 청년간 교류사에 있어서 임수경씨(당시 대학생)의 방북이 분단 이후 최초 사례. 당시 법제도 하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 대학생 대표 자격으로 방북. 앞서 언급한 7.7 선언 등을 전후한 통일, 화해 분위기에 고무된 상황에서 전격 진행되었고, 그 이후 대학생들의 통일 운동에 큰 변화를 만든 계기 됨
-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2000년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2007년까지 남북문화교류가 가장 활성화. 인적왕래, 경제협력, 대북지원 활동,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교류, 사회문화, 학술, 종교,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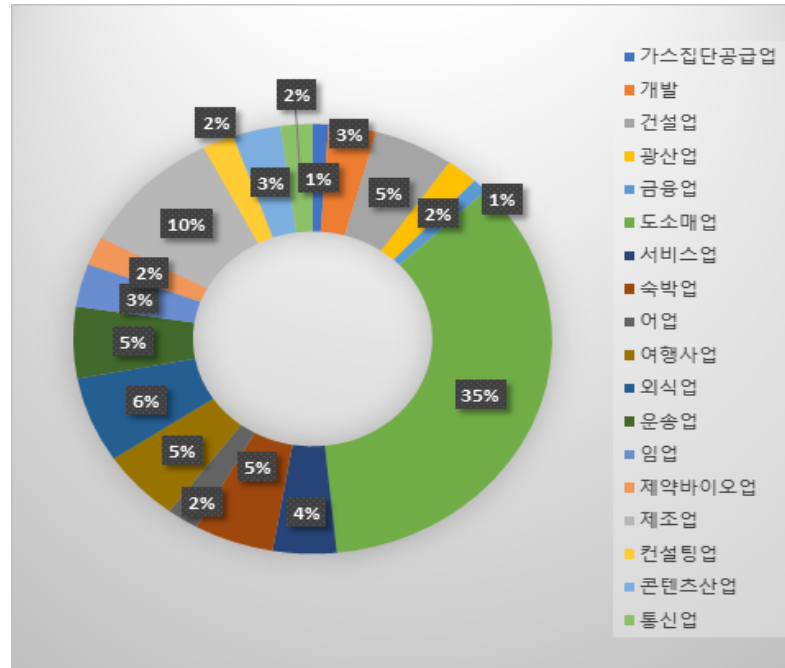
¹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 17.

- 분단 이후 첫 민간교류는 1998년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시작으로 200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2002년 MBC 평양특별공연, 2003년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2005년 조용필의 평양공연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비핵화를 국정 전략으로 채택, 이의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
 - 남북문화 교류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면서 완전히 소강 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다시 활기를 회복. 다만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투 트랙' 전략, 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되, 남북관계는 개선하겠다는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을 기본노선으로 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개월 간(2017.8.14까지)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총87건에 이를 정도로 각 분야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
 -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여전히 남북공동으로 진행 중. 이를 통해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2곳, 대형 계단 2곳, 금속활자를 비롯해 꽃형 청자접시와 고려 시대 원통형 청자 등 유물 1만6천500여 점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둠

표 1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사업 경제교류 분야별 현황(출처:통일부)

분야	개수
가스집단공급업	1
개발	3
건설업	5
광산업	2
금융업	1
도소매업	33
서비스업	4
숙박업	5
어업	2
여행사업	5
외식업	6
운송업	5
임업	3
제약바이오업	2
제조업	9
컨설팅업	2
콘텐츠산업	3
통신업	2

그림 4 남북교류사업 경제교류 분야별 현황(개성공단 제외)



- 대북사업승인일 기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 분야에서 총93개의 남북교류사업이 이뤄짐. 가스 집단공급업, 개발, 건설업, 광산업, 금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업, 어업, 여행사업, 외식업, 운송업, 임업, 제약바이오업, 제조업, 컨설팅업, 콘텐츠산업, 통신업 등 총18개의 산업에서 교류가 이뤄졌으며, 도소매업이 33개(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제조업이 9개(10%), 외식업이 6개(6%), 건설업, 숙박업, 여행사업, 운송업이 각 5개(5%). 가스집단공급업과 금융업은 각 1개로(1%)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

그림 5 남북교류사업 경제교류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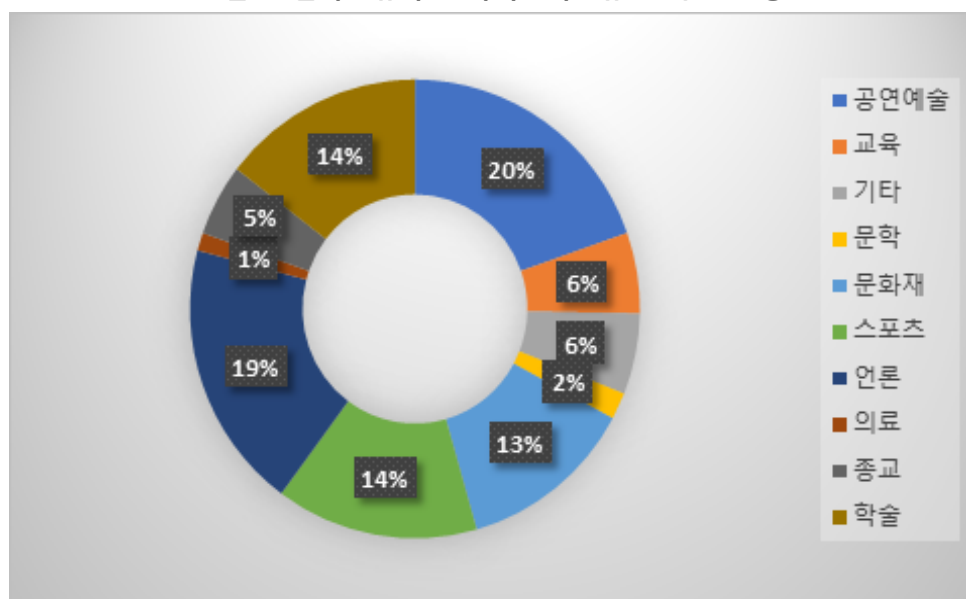
- 남북 경제교류는 금강산에서 45건이 이뤄졌으며, 평양에서 28건이 이뤄져 두 주요 지역이 대부분의 경제교류 비중을 차지. 남포에서도 15건의 경제교류가 이뤄졌고 해주와 개성에서 각 9건의 경제교류가 진행. 그 외 원산에서 2건, 정춘·함흥·청진·선봉에서 각 1건의 경제교류가 이뤄짐. 중국에서는 단동 2건, 대련 1건으로 총 3건의 국외 경제교류 진행

표 2 남북교류사업 사회문화교류 분야별 현황

분야	개수
공연예술	31
교육	9
문학	3
문화재	20
스포츠	23
언론	30
의료	2
종교	8
학술	23
기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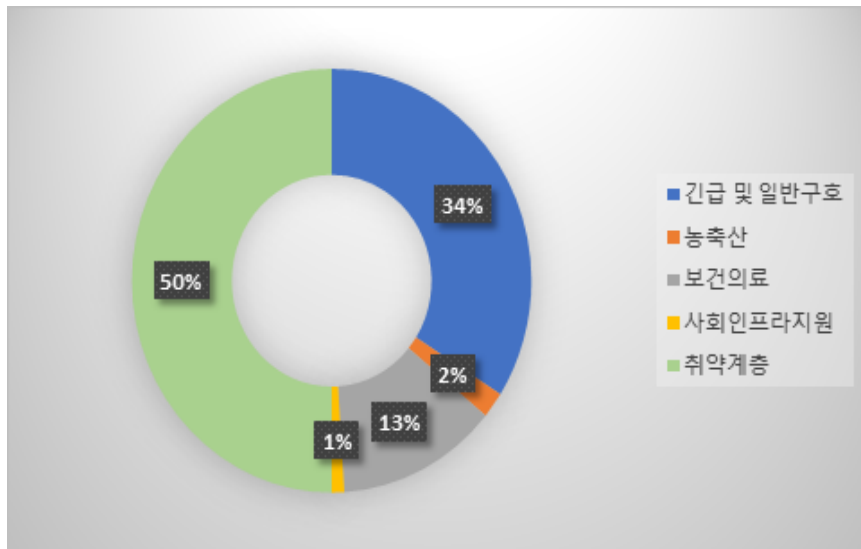
출처: 통일부

그림 6 남북교류사업 사회문화교류 분야별 현황



- 대북사업승인일 기준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문화 분야에서 총158개의 남북교류사업 이뤄짐. 공연예술, 교육, 문학, 문화재, 스포츠, 언론, 의료, 종교, 학술, 기타 등 총10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졌으며, 공연예술 분야에서 31개(20%), 언론 분야에서 30개(19%), 스포츠와 학술 분야에서 각 23개(14%), 문화재 분야에서 20개(13%)로 나타남. 또한, 교육과 기타 분야에서 각 9개(6%), 종교 분야에서 8개(5%), 문학 분야에서 3개(2%), 의료 분야에서 2개(1%)의 교류 진행

그림 7 남북교류사업 인도지원



- 남북교류사업 인도지원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수많은 교류 이룸. 취약계층 분야 지원은 5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북지원 민간단체 활동이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집중됨을 나타냄. 긴급 및 일반구호 분야가 34%로 인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구호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보건의료 분야는 13%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 북한이 일반적인 의료물품지원 외 병원시설 건축, 개보수 등 장기적인 사업 진행을 요구해 중단된 것으로 추정. 농축산분야 지원의 경우 비중이 매우 적는데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지원사업이 농축산분야보다 우선시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냄. 사회인프라 분야의 경우 초창기 구호 활동에서부터 조금씩 시행됐지만 5.24조치 이후 전면 중단되어 가장 미미한 비중을 차지²

² 문경연·이우영·정소민, “대북지원 20년(199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과와 과제,” 『국제관계연구』,

2) 서울시 남북협력사업 사례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은 2004년에 시작
 - 2004년 7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년 간 총20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2005년 1월 3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립. 2017년 기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외부위원 12명, 시의원 2명, 당연직 3명 소속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도 아래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방향이 확대
- 서울시는 독립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며,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종속됨³.
 -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했으며 통일평화교육 및 관련 학술 지원 진행

표 3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유형별 분류

유형	남북교류협력	민간교류협력지원	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평축구대회 - 서울시향과 북한교향악단 교류 음악회 - 남북 냉면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아동제과원료지원 - 고구려유물전시회 - 남북공예대전 -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전 -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 평양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 북한수해구호 의약품지원 - 모내기 전 육모용 비닐박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통일한마당지원 - 서울-평양 협력방안 연구용역 - 서울 평양 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 - 6.25/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선언 - 통일교육 지원사업 (강좌/현장체험/전문가 양성) -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제22권 1호(2017), pp. 40-41.

³ 김창수 외, 『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방안』(서울: 서울특별시의회, 2017), p. 58.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은 ①남북교류협력사업, ②민간교류협력지원, ③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북한과 직접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고건 총리시절부터 추진을 희망한 경평축구대회가 대표적. 북한과 직접 교류사업을 논의할 수 있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핵심적 유형
- 민간교류협력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민간단체 및 기타 비정부행위자를 지원해 우회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도모. 서울시가 주체로 활동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수행. 대부분 서울시가 기금을 지원하고 단체가 사업을 진행

표 4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민간단체 평화통일교육 사업(2019년 기준)

	사업명	단체명
민간단체	유니메이킹스쿨	청소년통일문화
	2019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젝트	(사)한반도평화포럼
	청년 역사평화 해설사 양성과정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2019남북 통일 특집 강좌	(재)불교방송
	청소년 나라사랑 통일리더캠프	(사)국학원 서울국학원
	스포츠를 통한 피스메이커 만들기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소소한 행복나눔을 위해 준비하는 현장체험교육	S&Y도농 나눔 공동체
	WE ARE ONE KOREA!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강연 및 시민원탁토론회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남이랑북이랑! 평화통일교육과정 연계형 워크북개발과 학교단체교육운영	아하!열린교육센터
	영화와 문화로 나누는 통일이야기	AOK 한국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서울 YWCA
	서울-평양 사회적경제 국제 심포지움	(사)하나누리
	한반도 평화를 꿈꾸는 통일인문포럼	(사)미래복지경영
	평화를 위한 한걸음 ‘통일 할아버지의 선물’	극단 진동
	근대100년사와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시민교육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아동 대상 평화소통교육	청소년희망플랫폼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는 평화콘텐츠	(사)어린이어깨동무
	광진구 평화·통일 어린이 합창제	광진시민연대
	평화·통일 교육 전문가 워크숍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통일보드게임 메이커톤	꿈꾸는 다락방
	청소년 통일감수성 함양 토론연극 <오버더라인(over the line)2>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 해
	통일연극 ‘흥매 씨의 통일한뎌’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너와 나의 희망이 하나 되는 토론극 ‘talkplay’	(사)북한개발연구소
	글로벌 탈분단 평화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사)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서울시민이 담아내는 통일	꿈을꿈을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와 함께하는 <같이 가치 평화•통일 캠프>	(사)플레이시드스쿨
	2019 통일경제 청년리더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만드는 유튜브”	통일경제포럼
	쓰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통일탄탄 세미나	(재)나이스피플
	다름을 인정, 차이를 너머 공존의 삶을 살자 ‘찾아가는 평화’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흘러가는 한강,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만나다	동작공동체라디오
	연극으로 멀어지는 관심과 메말라 가는 감성을 깨운다	피스브릿지
	시민이 직접 만드는 ‘평화시대를 위한 통일안내서’	(사)우리겨레하나되기본부
	통일대비 보건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사)국제푸른나무

출처: 서울시 행정

표 5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자치구 평화통일교육(2019년 기준)

	사업명	자치구명
자치구	2019년 동작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동작구
	구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	도봉구
	용산 통일을 코디하다	용산구
	보고 듣고 경험하는 959통일로	구로구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미션 성동구 청소년 관찰사	성동구
	미래통일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연극공연	노원구
	통일 리더러시 하하•GO	마포구
	평화•통일 공감 토크콘서트	강서구
	피바다에서 BTS까지 남•북 문화예술의 이해	종랑구
	동대문구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체험	동대문구
	통일 공감	종로구
	남북미래 청년 아카데미	관악구
	금천구 평화 날개 프로젝트	금천구
	2019 강동구 평화•통일 기원 통통 토크콘서트	강동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주민 공감 평화•통일 교육	송파구

출처: 서울시 행정

- 서울시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교육이나 통일 및 평화 관련 행사를 보조

표 6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유형별 특징

분류	남북교류협력	민간교류협력지원	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
성격	직접 교류	O	O/△
현황	시행 여부	X	O
내용	적실성	O	O/△
	효과성	O	O/△
제도	독립성	X	△
	지속성	-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2017)

- 단기적 남북교류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이벤트는 물론 기존 남북교류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 기존의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키기에 부족하며, 내용 측면에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 만큼 효용성이 높지 않음
-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북한과의 교류는 대부분 민간단체를 우회해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룸. 북한아동제과 원료지원,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등 대북지원 NGO를 우회해 북한에 필요한 물자 제공⁴
 - 서울시민과 북한주민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부재
 -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통일평화 교육에 서울시민의 특색이 없음. 서울시민의 정체성으로 대북 인식을 지니게 하기 보다는 보편적 통일평화 교육에 그침
- 서울시는 법적으로 남북협력 실행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을 활용해 남북 경험 분야 선정 등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필요
 -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행위자로 나설 수 있는 제도 재정비 필요. 직접적이고 서울시민의 참여를 담보하며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와 내용에 대해 근본적 논의와 구상을 주재할 수 있는 싱크탱크 창립 또는 연구인력 보충 필요

3) 지자체별 대북협력사업 사례

-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으로 남북 지방간 교류가 대두됐고, 강원도가 1999년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운영. 지난 10년 넘는 지자체의 대북교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북교류, 특히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남한에서 통용되는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에서 사업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남한에 의한 일방적 경제지원을 남북 지방교류로 인식하는 사례가 대부분
 - 남북측 모두 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제한적. 남측에서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이고 북한에서 지방자치는 대외적 독립성이 전무

⁴ 김창수 외, 『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방안』, p. 55.

- 사회문화교류사업은 남측에서 접근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인적왕래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영역
- 지방정부의 경우 북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담조직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재정확보도 쉽지 않아 중앙정부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
- 이외에도 지자체간 교류에서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거나 성과 중심의 성급한 추진 또는 이벤트성 사업 추진 등이 있음

표 7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 현황

지자체	주요 교류협력사업 내용
서울	- 북한 아동 대상 밀가루 등 제과원료 지원(2005) - 남북 전통공예 교류전(2005) - 금강산 윤이상 음악제 개최(2006) -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2006~2009)
부산	- 평양 항생제 공장 건립 및 원료 지원 사업(2006~2007)
인천	- 제16회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2005) 북한 참가 - 평양축구장 현대화 사업 지원(2007) -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평양 창광거리 현대화 사업(2008)
울산	-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2007) - 결핵 치료 약품 지원
강원	- 금강산 병충해 방제작업 - 연어 부화장 건설(2003) - 남북 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2006) - 안변 연어사료공장 건설(2008)
경기	- 평양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 조성, 농업현대화 사업(2006~2008) - 개풍 양묘장 조성(2008)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2008~2010) - 남북유소년 축구교류 지원(2008, 2014~2015)
전남	- 평남 대동군과의 농업협력사업 - 평양 발효공 공장 건립 사업(2007, 2008)
전북	- 황남 신천군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지원 사업 - 평남 남포시 대대리 양돈장 건설 지원 사업(2007)
경남	- 평양시 강남군 자육리 협동농장 농업협력사업
제주	- 감귤 보내기 및 제조도민 북한방문 사업 -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
충북 제천	-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 조성 사업(2004) - 삼일포 농장 관리동 신축 지원(2005) - 제천시-북고성군 남북협력사업 확대 지원(2007)

출처: 김동성 외,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p. 57.

[동서독 교류]

- 독일은 각 지방 특색이 강한 연방제 국가
 - 서독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민간/개인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동독은 정부 통제하 정부 중심방향으로 교류 추진
 - 독일통일의 중요 계기가 된 법은 서독의 '기본법'과 동서독 간 기본조약
 - 동서독의 법적 장치와 동서독 기본조약에 의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촉진

서독의 기본법(1949.05.23)

“모든 독일국민에게는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이 요청된다.”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제정된 헌법이 발효되는 날 그 효력을 잃는다.”

동서독 기본조약(1972.12.11)

- 양자의 관계를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

(동독은 별개 국가에, 서독은 동서독 간 특수성에 초점)

- 기본조약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자유로운 왕래 보장

-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와 주민들 주도로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양독 간 긴장 완화하고 평화 정착

표 8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주요 내용

-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공동노력과 의견교환의 증진
- 평화보장을 위한 구체적 활동과 가능한 대안에 대한 정보교환
- 파트너도시에 대한 대 시민홍보, 자료전시와 정책경험 교환, 상호자문
- 지방자치의 기본문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문제, 건축/재개발/기념조형물 설치
- 지방행정서비스와 근린교통, 사회정책과 보건복지정책
- 산업·교역·경제(지역경제) 발전문제
- 환경보호·자연보호·농촌보호, 문화예술분야, 과학과 교육문제, 여가·레저·스포츠
- 청소년보호문제와 청소년정책, 여성문제(남녀평등문제), 공동체정신의 구현
- 여행, 관광 등에 대한 공동의사형성과 정보교환

4) 금강산, 개성 관광

-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명제 앞에 1988년부터 본격화된 남북교류와 협력은 인적, 물적 교류 측면뿐 아니라 북한 지역의 관광 사업측면에서도 진행

○ 남측 주민의 북측 관광이 허가된 기간(1998~2008)에 북측의 금강산과 개성을 여행한 남측 주민의 수는 총2,046,695명

표 9 1998년 이후 금강산/개성 관광객 추이

관광객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강산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개성	-	-	-	-	-	-	-	1,484	-	7,427	103,122

[금강산 관광]

- 금강산 관광은 그 자체가 관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NGO단체의 대북사업 대화장소 제공 및 진출 통로로서 의미가 중요. 이를 통해 농업, 축산기술 전수, 보일러 보급, 연탄 보급, 나무심기운동, 의료서비스 제공 등 생활개선 지원사업과 다양한 문화 교류와 복원사업이 진행. 이로 인해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한 대륙진출 시발점 됨
-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발전시키기 위한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원회 간 계약으로 이루어짐.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주영 회장의 유지에 따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증진, 남북 간 신뢰 회복, 한반도 긴장 완화, 통일(통합) 및 세계평화 촉진, 관광사업을 통한 남북 간 민간교류 확대 및 북한의 경제 자생력 향상을 통한 통일비용절감 등을 목표⁵

○ 연 30만명 남북 관광 시대가 열리면서 남북 경험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활성화와 동북아 중심 건설 구상 실현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 발생으로 10년만에 중단

- 2018년 11월 18~19일 금강산에서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금강산관광 시작 20돌 기념 남북공동행사’는 10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관광 사업이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계기 마련

⁵ 박영정 외,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환경 조사 연구,” 2019년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문화TF, p. 24.

- 대북제재로 관광 재개가 추진되기보다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 금강산 지역 개최 등이 이뤄질 예정
-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은 진척이 없음. 현 정권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관광교류협력이 어려워 보임

[개성 관광]

- 금강산 관광뿐 아니라 개성 관광도 남북사이 교류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 미침.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위원회와 현대아산 사이 체결한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로 개성 관광 시작됨
 - 공업지구는 물론 문화와 관광 그리고 상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 서울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놓아 관광사업에 박차 가함
 - 고려의 수도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개성과 서울 사이 군사분계선, 판문점, DMZ 등이 있어 관광 상품으로 충분한 잠재력 지님
 - 개성공단은 분단 이후 남북 최초 산업과 경제 협력이 실현된 지역으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하는 상징적 공간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포는 남북관계 경색 절정을 보여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제까지의 교류나 협력이 완전히 단절
- 남한 주민의 일방적 북한 관광에만 머물러있는 기존 관광패턴 변화 필요. 기존 관광교류는 남측의 기업이 자본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자원, 환경, 인력 제공. 신개념 남북관광교류협력으로 남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오는 쌍방향관광 진행할 필요
- 남한과 북한이 당장 관광교류협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 등과 같이 북중 관광 교류 현황을 주목해 제3국을 통한 교류협력 방안 도출할 필요⁶

⁶ 박영정 외,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환경 조사 연구,” p. 28.

표 10 북한 여행상품 제공 중국 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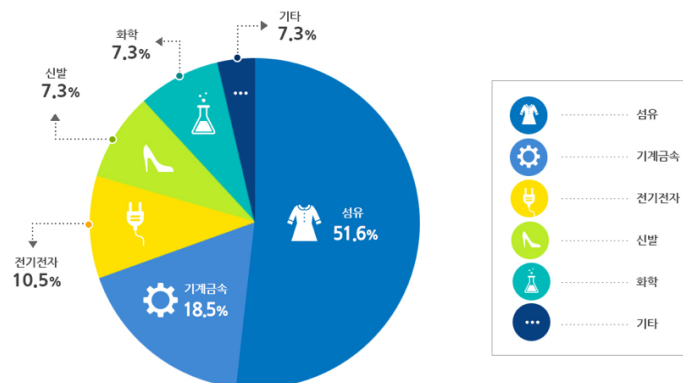
여행사	아이템	특징
단둥구주국제여행사 (丹東九州國際旅行社)	평양-개성-판문점-묘향산 4박 신의주 1박2일 개성-평양-판문점-원산-금강산 5일	단둥 출발 평양 3박 개성 연회
잉커여행(盈科旅行)	상하이-평양-묘향산-개성-남포-상하이	4박 5일
C-Trip(携程)	베이징-평양 4박	김일성 박물관, 민경대 소년궁, 조선개선문, 우의 탑, 만수대대기념비, 주체사상탑, 평양 전철 방문
신신여행(欣欣旅行)	베이징-평양-묘향산-남포-개성 5박	남포 청산농장, 개성 고려인삼 체험
랴오닝성 모(某) 북한전문 여행사	한국거주 또는 한국 출발 외국인 대상 독점	비자없이 관광증으로 대체 특별전세기 이용 서해항로 평양행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남북 분단 체험 북중접경지역 투어	단둥-속초-고성-철원-판문점-청와대 베이징-톈진-선양-단둥-신의주-선천-신안주-평양

출처: 박영정 외,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환경 조사 연구," p. 28.

5) 개성공단

- 개성공단은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 가장 합리적인 경제협력 모델로 꼽힘. 2016년 중단됐으나 1998년 남북교류 본격화 이후 28년의 갈등과 협력 속 가장 합리적인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 잡음
-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 및 한국토지공사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개성지역에 2,000~4,000만평 규모의 공단건설 합의를 채택.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제정하고 2003년 6월 개성공단을 건설
- 2004년 입주기업은 15개에 불과했으나 2016년 전면중단 이전까지 125개 기업 입주, 5만4천여 명 북측 노동자 고용, 누적 방문인원 115만명 달성 이룸. 2006~2015년까지 10년간 누적 생산액은 32억달러를 돌파

그림 8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 현황(2015년 기준)



출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총 2,000만평을 3단계에 걸쳐 개발을 계획. 800만평은 공장구역으로, 1,200만평은 생활·관광·상업 구역으로 개발 예정
 - 전체 2,000만평의 면적에서 100만평, 250만평, 550만평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며, 900만평의 단계별 개발이 예정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 중 400만평은 북측이 자체개발하고 700만평은 사용용도를 추후 추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음⁷
 -

표 11 개성공단 예상 개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용도		노동집약업종 중심 공단	도시형산업 기반 조성	다국적 복합단지 구성
규모		100만평	250만평	550만평
남한경제효과	연간생산(원)	9조 4천억	21조 7천억	83조 9천억
	부가가치(원)	2조 7천억	6조 1천억	24조 4천억
	일자리창출	13,000개	30,000개	100,000개
북한경제효과	연 임금수입	\$6천만	\$1억 3천만	\$6억
	일자리	84,000개	194,000개	730,000개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 총19,000개 남측기업의 현지진출, 생산설비와 원자재 전부를 남한에서 공급, 전 직원을 북측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전제조건 하 1단계에 남한에 1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2단계에서는 남측에 6조 1천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만여 개 일자리 추가 공급 추정. 3단계에선 24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1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추정
- 2010년 5·24조치 이후 일반·위탁가공 교역, 대북지원 등 대부분의 남북경협이 거의 단절되었던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유일한 통로
- 개성공단 폐쇄 전후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에 대한 입주기업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한 기업이 전체의 95.1%였으며, 개성공단 입주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88.9%에 달함. 개성공단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치적 불안이 아닌 ‘근로자 공급차질’이었음. 무엇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소기업협회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가동시 북한 진출의사를 밝힌 기업이 전체의 90%에 달함⁸

⁷ 송장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서울: 중소기업연구원, 2011), p 12.

⁸ 송장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pp. 54-56.

- 개성공단은 저임금, 세금, 지가, 물류 등에서 중국 청도공단이나 베트남 판뚜언공단 보다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북측 근로자 공급 한계, 미흡한 노동생산성, 남북관계에 민감한 기업환경, 통행 및 통신문제, 투자보장의 문제 등 한계점도 가짐
 - 개성 외 지역 근로자들의 개성유입을 위해 합숙소 건설, 개성 출퇴근 위한 도로 건설 필요.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요감축을 위해 노동생산성 강화, 공장자동화 강화할 필요 있으며 투자보장장치도 강화해 투자손실을 줄일 필요

[북한 주요경제지대]

표 12 2018 북한 주요경제지대들

구분	경제지대
중앙급개발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량강도	무봉국제관광특구, 해산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신평관광개발구
평안남도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평양시	강남경제개발구

출처: 차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2018)

표 13 북한의 주요경제지대 중 중앙급개발구

경제지대	위치	면적	업종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강원도 일부	440km ²	휴양·치료관광, 역사유적관광
라선경제무역지대	라선시	470 km ²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업(서비스업)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시 신도군	52.49 km ²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강원도 고성/금강군	225 km ²	금강산관광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신의주시	40 km ²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강령군	3.5 km ²	녹색산업기술 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평양시 은정구역	2 km ²	정보기술, 나노 및 새 재료, 생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 생산과 수출, 첨단기술 전시와 교류
진도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구역	1.37 km ²	원료, 자재, 부속품을 수입해 현대적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및 화학제품들을 생산, 수출

출처: 차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6) 남북교류 평가: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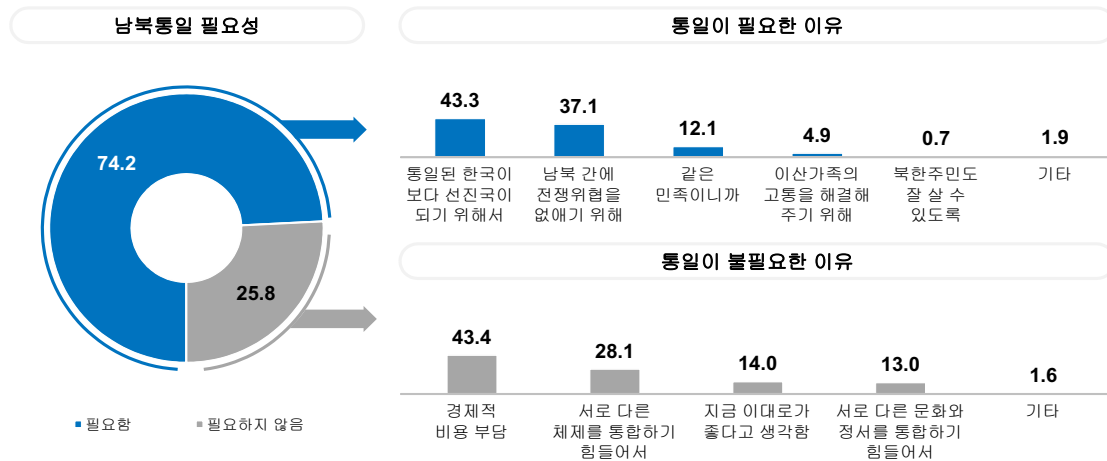
[성과]

- 1998년 이후 남북 청소년 교류 및 협력과정에 기존 정부만이 아닌 민간단체라는 새로운 행위주체가 등장하면서 참가인원, 활동기간, 활동성격 및 유형 등의 규모가 확대 및 증진되고 청년 분야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
- 1990년대의 교류가 대부분 학술분야 중심으로 제3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데 비해,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직접 왕래를 통한 교류가 진전. 기존의 교류주체가 대학생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적교류가 시행.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무심기(2003-2007), 어린이교류(2005-2008), 대학생 통일행사(2002-2007), 남북유소년축구단 상호교환경기(2007-2008) 등 인도지원, 체육, 통일행사 분야에서 남북청년 또는 청소년 교류까지 확대
- UN, 미국,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교류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어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임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한 동시입장 등 합의하고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방남 공연에 합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커다란 전기 마련
 - 2018년 2월 8일과 11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공연을 강릉아트센터와 국립극장에서 진행해 북한의 대남관계 개선 의지 보임.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를 여는 전주곡으로 역할을 수행
 - 2018년 4월 1일과 3일 남한 대중가수로 구성된 예술단이 평양 동평양대극장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봄이 온다>,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단독공연과 합동공연을 진행. 남한 예술단의 구성은 이선희, 최진희, 과거 평양공연을 경험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윤도현 밴드, 실향민 2세인 김광민과 강산에, 백지영, 정현, 레드벨벳 등으로 구성. 삼지연관현악단의 남한 공연에서는 남한 노래를 다수 불렀으나 남한 예술단의 북한 공연에서는 <푸른 버드나무> 1곡만 불러 곡목 선정에서 상호주의가 파괴. 2차 남북합동공연에 참가한 삼지연관 현악단도 북한 노래가 아닌 계몽기가요를 메들리로 연주. 남북한 공연예술교류에서 보여준 북한 당국의 태도는 대남정책의 큰 변화 예고⁹

⁹ 박영정 외,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환경 조사 연구,"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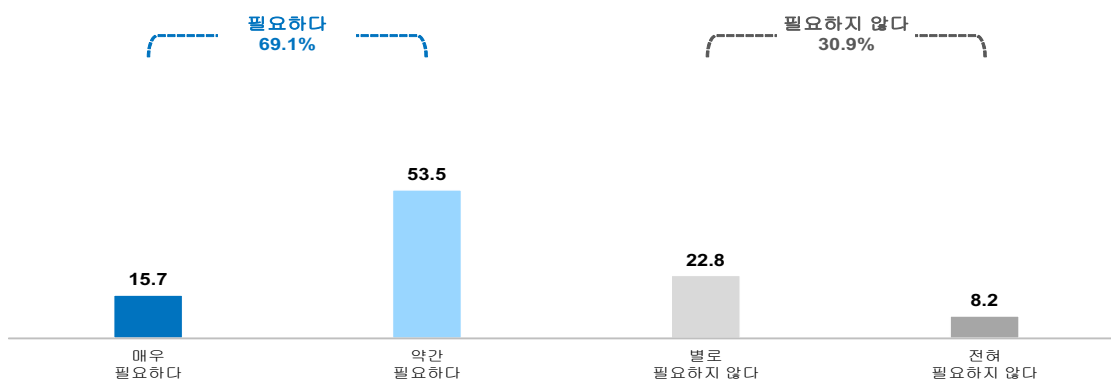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북한 및 남북한 교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2018년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¹⁰에 따르면 74.2%가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해 높게 공감하며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전망

그림 9 통일의 필요성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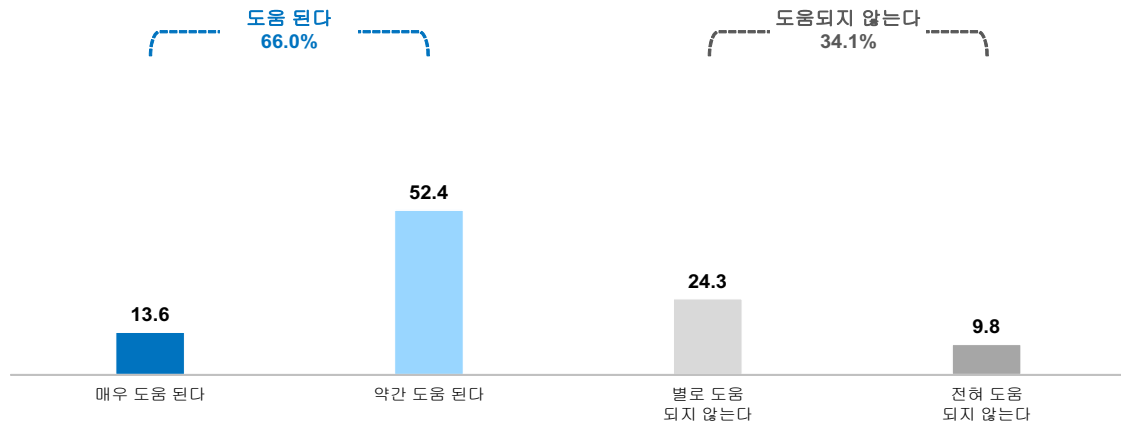
- 응답자 중 69.2%가 서울시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6%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

그림 10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



¹⁰ 남북협력추진단이 2018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 남북협력추진단,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보고," 2018년 남북협력추진 사업.

그림 11 남북관계 개선 등 도움



[한계]

- 남북정상회담 이전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일방적인 교류협력과 북한문화예술의 일방적 남한유입 및 수용. 교류협력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의 내용이 다수. 또한 사회문화교류의 대부분이 개인 간 교류가 아닌 대규모 이벤트성 공연예술이나 스포츠행사, 언론방문/취재, 학술, 문화재 조사 등에 집중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미력하게나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나 지난 10년간의 경색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크게 훼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의 재건 또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수
 - 과거 남북청년의 교류는 정치, 사회 정세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음
 - 남북교류가 중앙정부의 국가단위 대북정책에 예속돼 지방정부 간 교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명무실화 됨. 남북이 상호 일방적 제도만을 주장하고 있어 신뢰성을 부여하고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최선의 제도를 구비할 필요
-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틀을 벗어나는 교류는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와 국제공조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3. 남북교류 사업 제약조건

- 실용적 관점에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방향도 필요. 경제 분야에선 인센티브와 사적소유 등의 개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문화침투에 대해서 북한은 강경한 입장. 즉, 남측의 대중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인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류 등을 기획할 필요.
 - 서독과의 교류는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사상을 파급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켜 체제안정에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어 동독 정부가 경제교류 외 다른 교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능한 제한하려고 한 사례 있음
 - 앞서 지자체 교류 사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사회문화교류 분야는 인적왕래가 불가피해 북한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는 분야
- 남북 사이 문화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적 왕래는 물론 다양한 물적 자원의 반입과 반출이 요구.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선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남북문화교류의 추진 단계는 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규제조건인 대북제재에 따라 달라질 것.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은 대북제재의 상황 속 가능한 사업과 대북제재 해제 후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서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림 12 제재 유무에 따른 사업

제재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

- 인도적 지원, 한국법인의 북한 여행 사업, 해외법인의 북한 여행 사업 접경 지역/한국에서의 관련 비즈니스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메인 비즈니스 관련 계획수립 및 대북 협의, 투자자/파트너 섭외

제재해제 여부 또는 해제 범위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사업

- 북한 현지에서 실행해야 하는 모든 사업
- 국제기구의 기금 지원 및 관련 사업

- 남북교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정보의 불확실성. 사실확인이 어려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는 대북 관련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사업대상자인 북한 자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로 부터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주장의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음.

[대북제재]

- 일부 인도적 지원 외 모든 교류 차단
 - ✓ 대북제재는 UN대북제재와 각 국가별 대북제재로 구성. 북한과의 무역이나 달러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북한과 교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미국 내 금융계좌 폐쇄 또는 자산이 동결. 북한영해나 영공으로 들어간 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 내 정박이나 취항이 금지.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 차관 공여가 제한되며, 원조가 제한되거나 금지.
 - ✓ 인도적 지원의 경우 미국 내 단체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북한에 최소한의 '성의' 라도 보이려는 트럼프의 입장 등으로 조금씩 범위가 확장. 현재까지는 기존 인도적 지원을 해오던 단체들만 인도적 지원을 허용. 사회문화 교류 역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여행의 경우는 북한에 '벌크캐시(대량현금)'가 들어가거나 시설반입 등만 아니면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음
-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리스크와 일정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과 그 이후 단계로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
 - ✓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업무
 - 대북 인도적 지원
 - 북한 여행(한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해외법인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북한 여행)
 - 접경지역 또는 남측에서 연관 프로젝트 추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법인 설립
 - 메인 비즈니스(직접사업, 펀드, 중개사업 등) 관련: 사업계획 구체화 및 대북 협의, 투자자/파트너 섭외
 - ✓ 대북제재 해지 이후 시점
 - 의료 등 직접 사업, 국제기구 등 ODA 관련 사업
 - 북한직접투자 관련 민족펀드 설립 및 운용 등
 - 여행, ODA, 인도적 지원 등 기존 사업 지속

4. 평화경제 사업방향

-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민간/개인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를 기본원칙으로 정책 추진 필요.
- 정부는 리스크를 헤지(hedge)를 하거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 또는 정부가 민간이 시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조성사업을 맡고 청년들은 남북교류 사업의 주체이자 변화를 만드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구분

- 한국/미국정부, UN대북제재라는 과도기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는 정부가 헤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 개성공단사업자들에게 적용한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 및 교역보험 같은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제도 운영. 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의 부보율(보장율)은 최대 90%, 보험요율도 0.3~1.0%로 타사업보험 등에 비해 조건이 좋음.
-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정보제공, 인큐베이팅/컨설팅, 공모사업 등)를 제공하고 동시에 평화경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정정도 활동기반 제공
- 이전과 달리 서울시(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남북교류사업의 주체가 됨에 따라 청년청 등 청년조직을 중심으로 한 직접사업 기획 추진 필요
 -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상 지방정부는 대북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어 지방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펼침. 최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가 직접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 사업의 시기와 내용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대북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 추진
 - 대북 제재 해제 이전 시점 사업
 1. 인도적 지원 및 교육지원, 북한 여행
 2. 북중러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
 3. 남측 내에서 평화경제 관련 프로젝트
 4.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법인 설립
 5.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자/투자자금 모집 등
 - 대북제재 해제 이후 시점
 - ① 의료 등 직접 사업, 국제기구 등의 ODA 관련 사업
 - ② 북한직접투자 관련 민족펀드 설립 및 운용 등
 - ③ 여행, ODA, 인도적 지원 등 기존 사업 지속
-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하되, 북한의 필요를 고려한 장기 프로젝트도 반드시 포함
 - 북한이 가장 큰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야 중 하나가 이벤트성 프로젝트. 교류가 본격화되고 남북교류의 가치와 의미가 남북 모두에게 공유된 이후 재미나 반짝 행사 성격의 프로젝트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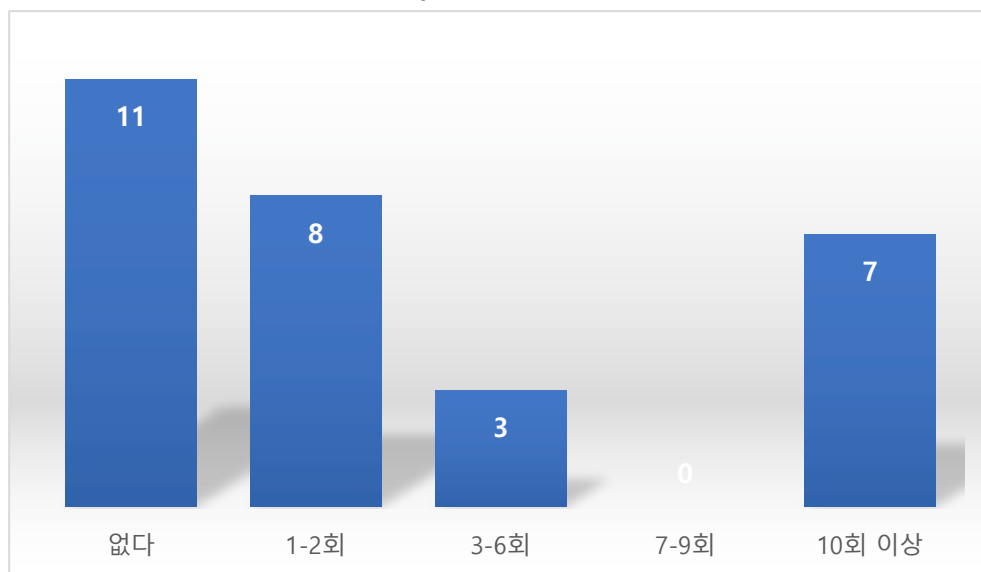
5. 청년교류사업 신규분야 모델

- 이번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요약하고 각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업/정책 등을 추가
- 2019 년 11 월 14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총 33 명의 인터뷰를 수행. 청년 29 명, 북한 전문가 2 명, 일본활동가 2 명이며, 이 중 청년 29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1)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았지만 연구자 판단에 따라 중요 문항으로 분류된 경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해 응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 설문조사 응답자 중 남성은 20 명(69%), 여성은 9 명(31%)
 - 연령별로는 20 대가 4 명(14%), 30 대가 17 명(59%), 40 대가 8 명(27%)
 - 직업군은 4 차혁명 관련 1 명(3%), 사회적경제 11 명(38%), 공정여행 3 명(10%), 국제개발 3 명(10%), 기업 2 명(7%), 대학생 2 명(7%), 청년/정치 3 명(10%), 통일 3 명(10%), 사회혁신 1 명(3%)

그림 13 통일/평화경제 관련 활동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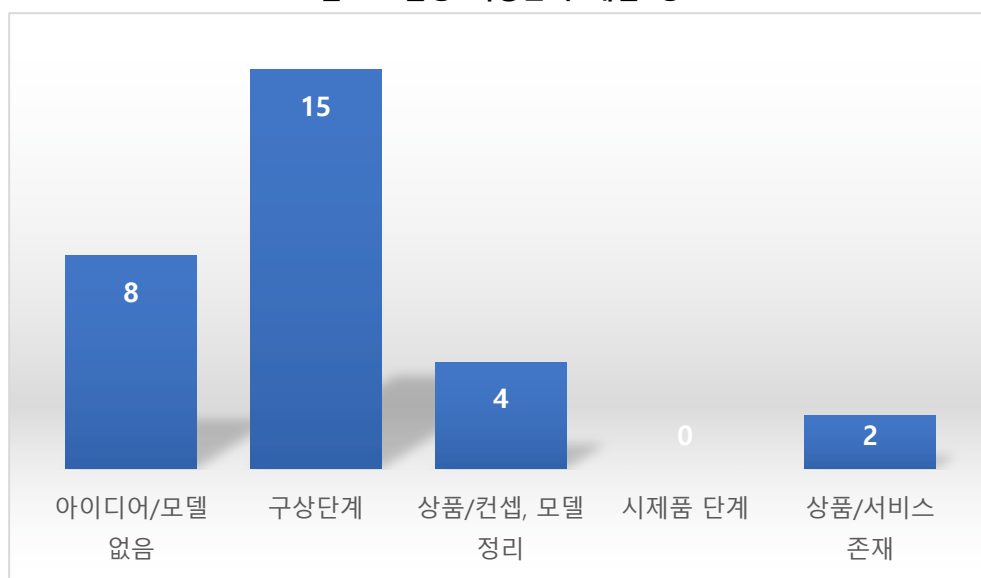
- 통일/평화경제 관련 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 11 명이 없다고 응답. 1~2 회 경험은 8 명, 3~6 회 경험은 3 명, 7~9 회 경험은 0 명, 10 회 이상 경험은 7 명으로 나타남. 활동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정보없음'이 6 명, '프로그램 없음'이 4 명이었음. 활동 평가를 묻는 질문에 모두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통일/평화경제 관련 활동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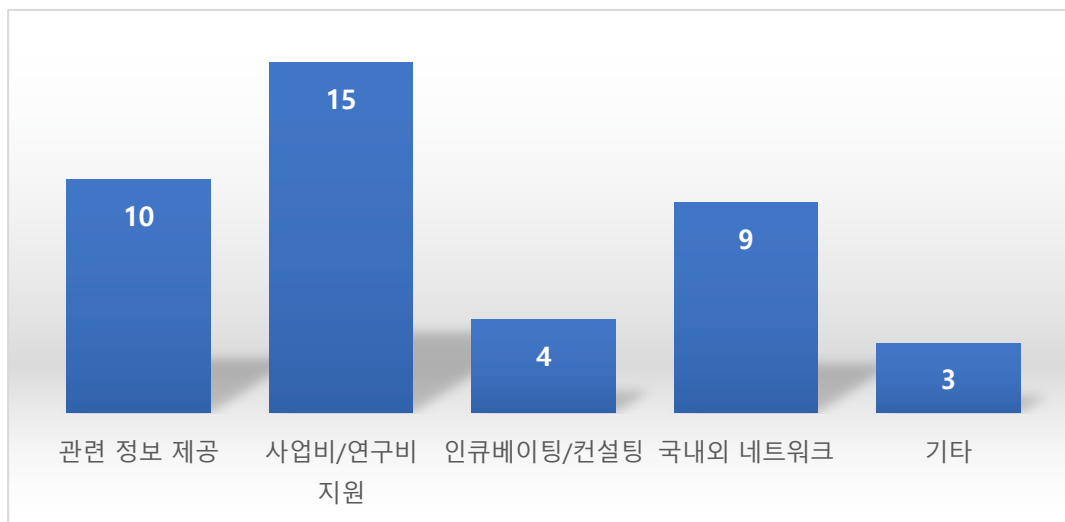
- 향후 통일/평화경제 관련해서 활동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5 명이 사업, 23 명이 사회문화교류, 6 명이 국제개발 및 인도지원, 3 명이 연구, 3 명이 기타라고 답변. 기타 3 명 모두 경험이라 답변

그림 15 활동 희망분야 개발 정도



- 활동하고 싶은 분야 또는 주제 관련 아이디어, 구상, 프로젝트 관련 상품이 어느정도 개발돼 있는지에 대해 8 명이 아이디어/모델이 없다, 15 명이 구상단계, 4 명이 상품/컨셉 또는 모델 정리 단계, 0 명이 시제품 단계, 2 명이 상품/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답변

그림 16 필요 선결조건



- 활동 희망분야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또는 선결조건을 묻는 질문에 10 명이 관련 정보 제공, 15 명이 사업비/연구비 지원, 4 명이 인큐베이팅/컨설팅 제공, 9 명이 국내외 네트워크 제공, 3 명이 기타라고 답변. 위 항목은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답변으로 법적문제 해결, 신변 안전보장, 남북한 신뢰구축이 있음

2) 인터뷰 결과

[희망사업]

(1) 4차산업 지구 형성

- 기존의 제조업, 경공업 중심이 아닌 스타트업 지구를 만들어 남북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혁신지구 조성. 나진선봉, 평양 과학자거리 등 미래산업을 위한 허브 기관 구축

“4차산업과 연결해서는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제조업, 경공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스타트업 지구를 만들어 남북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혁신지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선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과 중국이 협정을 맺어 동북산성, 나진, 두만강까지 조성된 산업을 이용해 인공지능 특화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RnD 특구 지구가 조성되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동북산성,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모여 혁신을 이루어내 동북아시아 국가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지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허브 기관과 인프라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평양에도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등이 생기면서 인공지능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같은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북한에도 있는 거 같아서 경쟁력이 보입니다.”

- 한국, 북한, 중국이 합작해 인공지능 또는 적정기술 개발. 평양 또는 나진선봉 일대를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어 동북아 기술 합작 도모

“기업들이 혁신 파크에 들어갔다는 것은 소셜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션이 있는 4차 산업 기업들이 들어가면 상징성이 있어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4차산업이 도입되고 남북중러가 합작을 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또다른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카드 시대는 짧았고 바로 모바일 페이 시대로 가면서 빠름의 상징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양의 일정 구역 혹은 나진선봉 구역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혁신파크 입주기업들 살펴보면 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인 효돌이 인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 인형을 구입해서 독거노인에게 제공합니다.”

- 평양 남쪽 전원 지역을 혁신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보는 실험

“기존의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리꽂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혁신스마트도시 같은 것일 수 있지요. 주변 축산이나 농장이 존재하면서 어느 정도 평지가 확보되면서 도심이 강하게 존재하고 생활 공급이 가능한 곳이 평양 남쪽 전원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혁신도시로 만드는 거죠. 한국이 한강 남쪽을 개발한 것만큼 평양 남쪽이 평지고 주변에 원예 단지나 축산이 있으니까 혁신도시로 만들자면 할 수 있고.”

(2) 남북 공동공간 조성

- 북한의 지역마다 커뮤니티 플랫폼을 설치해 공간을 통한 교류 진행. 남북 주민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공간 활용. 남북 주민이 모여들고 새로운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 평화의 가치 부여

“국내사례로 치면 성수동 같은 소셜벤처벨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곳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원 그리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융복합할 필요가 있고 그 융복합은 기성세대의 공격적인 기업이 아니라 함께 상생을 그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도시재생 많이 하잖아요. 북한의 어느 한 마을을 남북이 같이 협력해서 남과 북이 아닌 작은 컨셉의 마을로 만들어놓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마을 하나를 중간지대로 만들어서 교류가 가능한 곳을 만드는 거죠.”

“지금 청년들 북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보건소 같은 문화적 이미지가 강한 것들을 설치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보건소의 역할이 지역에서 크다고 생각해요. 남측에서도 북측에서도 보건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나가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시민사회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이 생길 텐니 거기에 로컬 NGO와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요.”

- 분쟁지역을 평화지대로 조성. 독일의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를 참고해 DMZ 를 녹색희망으로 변화

“그뤼네스반트가 생각납니다. 베를린 접경지역이 냉전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통행이 어려워 생태성이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통일 과정에서 환경이라는 접근이 쉬운 주제를 가지고 동서가 함께 협력해 통일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분쟁에서 분쟁지역을 평화지대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여행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평양 골목투어, 백두산 및 금강산 등반, 개마고원 트래킹 등 젊은 세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 개발. 평양의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인 이미지, 파괴되지 않은 자연환경, 고려의 역사를 간직하는 개성 등 여행을 통해 남북한 공감대 형성.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항일유적을 탐방하는 남북공동 해외여행 프로그램 개발

“북한 여행은 그 자체가 통일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곳을 가보고 싶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먼저 가보고 싶어요.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선 먼저 수도를 방문하니까 평양 골목골목을 갈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연 탐방. 백두산, 금강산 등등 자연으로 가면 거부감이 덜 하니까요. 산이나 개마고원 트래킹을 해보면 우리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평양이라는 도시를 2005년에 한 번 가봤어요. 그때 북에 대해서 거부감, 두려움이 일부 있었거든요. 막상 비행기에서 본 평안도의 모습이 우리 농촌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에 대해 공부를 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었는데 막상 보니까 무너져버리더라고요.”

“도심 RPG를 북한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잘 모르니까 북한의 지역을 찾아다니는 미션을 해보고 싶어요. 영화 제작자인 제리 브룩하임이 ‘Amazing race’라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에요. 스캐빈저 헌터라는 보물찾기 게임이 있는데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북한의 명소를 찾는 미션을 해보면 재밌을 거 같아요.”

“남북한 주민들이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교류라고 하면 북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깐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해외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항일유적일 수도 있고 관광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관광 사업모델]

- 관광산업은 자본을 투입하는 남측이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북측이건 양측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표 14 북한의 관광경제특구 현황

급별	명칭	위치	면적	업종
중앙급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강원도 원산	440km ²	생태환경 보장의 국제적 휴양 및 치료관광, 역사유적 관광
중앙급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강원도 금강군	225km ²	금강산 관광
도급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1.69km ²	골프, 수영, 경마, 관광서비스
도급	무봉국제관광특구	량강도 삼지연	20km ²	백두산지구 참관 및 관광객 종합서비스, 관광상품생산
도급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사주군	20km ²	압록강 유역 자연 지리조건 활용 관광서비스
도급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8.1km ²	명승지 유람 탑승 및 휴양, 체육, 오락 등 관광서비스

- 백두산 관광: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 피치 제공 가능, 활주로는 포장된 상태. 유도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일단 우선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북측이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관광단지 조성중. 인근의 마식령스키장, 금강산관광과 연계성이 높으며, 현대식 공항이 있음.
- 산악관광: 북한에는 해발 1500M이상의 산악이 70여 좌에 달함. 묘향산, 칠보산 등 북한의 명산관광도 가능
- 캠핑카 관광: 소떼 방북 재현 ‘모빌홈(캠핑카, 카라반, 루프트탑, 트레일러 등)’ 500대가 개마고원에서 캠핑하는 ‘캠핑 소떼’ 프로젝트. 캠핑카 500대가 일렬로 판문점을 넘어 개마고원을 향하는 스펙타클한 대형 이벤트임. 남북 교류가 재개되어 북한여행객이 늘어나도 남측 여행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북한의 숙박과 식당이 부족(‘조선관광’ 홈페이지 기준 북한의 숙박 시설은 유명 관광지에도 호텔급 숙소 한두 곳이 고작이고 기존의 북한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많은데 숙박 시설이 적어 당일 여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북한 아웃도어 여행은 북측에서 캠핑장 부지에 최소한의 폐수 처리 시설과 개수대만 설치하면 캠핑이 가능

- 위의 지역들이 관광지로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공정여행의 가치도 함께 살릴 대안 마련 필요

“관광특구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관광지로 개발한 뒤에 매력이 없어지고 인위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중문이나 경주처럼. 같은 부분이 반복될 수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려면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큰 그림만 바라보는 거고 기업적인 개발만 바라볼 수 있어서 공정여행의 가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여행학교 프로그램 개발. 실제로 일본 재일조선인 조선학교를 방문해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여행학교를 실시할 예정

“실제로 내년에 준비하려 해요. 청소년 대상으로 방학 때 여행학교를 진행해요. 일본을 매년 가고 있는데 주제가 역사와 평화예요. 일본에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일본 청소년들을 만나서 교류하는데 거기 덧붙여서 조선학교를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려 해요.”

- 남한의 일방적 관광상품 개발이 아닌 평양에 있는 대학과 협업해 ODA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연구. 개발 수익금은 병원, 학교 등 생활기반 시설을 위해 사용

“3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ODA 관련 원주민 관광상품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런 모델을 북에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개발 원조로 도로를 깔다가 관광 ODA에 관심이 생겨서 원주민 관광상품 개발을 진행했었거든요. 캄보디아 정글 같은 곳에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관광을 받아들일지를 왕립프놈펜대학교와 함께 연구했었어요. 우리만 모델 만들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대학과 협업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관광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병원이랑 같이 접근했어요. 태국 도이통 프로젝트를 보면 가난, 무지, 배고픔은 같이 오기 때문에 병원, 학교, 살아갈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같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해요. 도이통도 보면 커피를 재배하잖아요. 커피도 로스팅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카페로 진출하고. 인적교육을 해주고 그 수익금으로 학교를 만들고 병원에 만드는 데 쓰이는 형태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4) 교육 서비스 사업

- 평양, 평성, 운정, 신의주 등 주요 산업 도시에 교육서비스 사업 제공. 학습에 대한 욕구가 큰 북한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 법률, 마케팅, 재무, 비즈니스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 학습도 있을 것이고. 90년대 연변에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많이 한 게 학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먹혀. 연변의 젊은 애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 북경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 90년대는 중국 중앙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한국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아니고. 한국 청년들이 잘하는 게 경제교육 시스템이잖아. 엘리트 집산화. 그런 서비스 산업 분야는 주로 도에서 해야 해. 북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서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곳이 평양의 평성 운정 과학기술구. 거긴 한국의 강남 같은 데라서 거기 사는 애들 부모가 다 과학기술자들이야. 자식들 교육은 상당히 침해하지. 평양의 평성 운정이 한국 서비스 산업이 들어가면 되고 원산, 신의주 이런 데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

(5) 슈퍼 그리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슈퍼 그리드 공급망을 연결하고 에너지 전환 파악. 동북아가 슈퍼 그리드 전력망을 공유해 북한의 전력문제 해결. 수출입은행, 외교부, AIIB 등 공적자금원조로 다국적 슈퍼 그리드 구축

“최근에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관심이 생겨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취약점이 간헐성이잖아요. 해가 뜨는 시간, 바람이 부는 시간 같은. 동북아가 슈퍼 그리드로 전력망을 공유하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이 열렸을 때 보통 철도 중심 사업을 상상하지만 에너지 공급망을 연결하면 에너지 전환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봤어요. 동북아라도 전력망을 공유하면 신재생에너지 문제점도 해결하고 전력공급 안정성도 올라가니까요...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 활동, 실험,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남북공동협력으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정여행도 생각해봤어요. 자본이 투입되면 북한 내 빈부격차가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해 고민도 했었고요. 북한이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없겠지만 교류하게 됐을 때 마을 공동체와 함께할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

[조선 익스체인지 (Chosun Exchange)]

- 조선 익스체인지는 싱가포르의 한 단체로 북한 안팎에서 워크숍, 인턴십, 멘토, 장학금 등을 통해 북한 내 기업인과 기업 마인드를 갖춘 개인들을 지원
- 법률, 경제 정책, 마케팅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분야에 대한 훈련과 전문지식을 지원. 다양한 국가의 정책입안자, 연구원, 국제 언론들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북한의 사업과 경제 환경을 이해하도록 함
- 2010 년부터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을 훈련시켰으며, 교육받은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을 차리거나 기존의 경영 방식을 바꾸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 소매점, 식당, 카페 등을 창업하거나 마케팅을 활용해 가게 운영방식을 개선
 - 평양, 나진, 원산, 운정, 평성에 방문하거나 싱가포르에 신청자 초청

표 15 조선 익스체인지 주요 사업

주요 프로그램명	내용
'여성 사업가' 워크숍 (Women in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기술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 내 중소기업 여성 관리자 대상 - 스타트업 방법, 마케팅, 프로젝트 관리, 재무계획,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비즈니스 관련 교육 - 북한 내 시장의 사업 기회 인식, 경쟁력 있는 아이템 개발, 서비스 산업의 혁신 추진 - 2014 년 참석 인원 84%가 여성
'지역 개발' (Provincial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권 개발, 기업 및 투자 환경 개선,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역 개발 관련 교육 - 원산-금강산관광지구 토지이용법 개정, 운정경제특구 규제 변경, 조세정책 추진 연구, 육성 및 창업 토대 마련
'Tech Start P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야 기업가 정신(Technology Entrepreneurship) 시범 프로그램 진행 - 스타트업, 네트워킹,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관련
'젊은 기업가 네트워크' (Young Entrepreneurs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초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 - 스타트업 방법,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생성 관련 교육 - '엄마들을 위한 페이스북 (Facebook for Mothers)', 온라인 의료 서비스, 온라인 거래소 서비스 창설
'북한 경제 포럼' (DPRK Economic F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경영, 관련 교육
'평양 도시개혁 주간' (Pyongyang Urban Innovation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 디자인 발굴 - 평양의 건축과 도시계획을 탐구하기 위한 도시투어
'운정 스타트업 페스티벌' (Unjong Startup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중심지 운정경제특구에서 운정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 평양 및 운정경제특구 현장 방문,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주민과의 대화형 워크숍 개최

출처: Chosun Exchange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송전도 일종의 슈퍼 그리드로 연결하면 되니까.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송전망을 재생에너지로 연결한다는 말도 있었고. 인천으로 송전케이블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진행되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하고 철도 천연가스 전력의 그리드 연결을 논의하고 있고 농경 지역 전력은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도 되고. 부분부분 마이크로 그리드는 되어있는 거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마이크로 그리드를 슈퍼 그리드로 연결하자는 거지. 하드웨어는 송전선 연결하는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남측에서 끊어져도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거나 다국적 복합 시스템이 되면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한국에선 노무현 정부 때는 전기수요공급을 예측해서 200만 킬로와트 전력을 떼서 공급할 수 있다고 봤어. 지금 한국 발전소 노후화를 봤을 때 일부 강원도나 수력발전소를 통합라인에서 떼어내서 화천발전소나 청평발전소 전력을 북쪽으로 공급하고 한국 전력공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이뤄지면 공적자금원조로 동북아 슈퍼 그리드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외교부의 ODA를 부분 통합해서 한반도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금으로 만들어서 런칭할 수 있도록. AIIB로부터 기금을 만들거나 러시아랑 연결하거나 해서 초기 돈을 모으면 다국가 협력 방식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실제 생활, 소비, 산업생산에 직접 파급효과를 줄 수 있고.”

(6) 북한 협동조합 및 시장 활용

- 북한 협동조합을 활용해 특산품을 개발하고 수공업품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 한국의 중고 IT 기기 및 가전제품을 북한 시장에 판매

“‘아름다운 가게’ 모델을 접목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요.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도 IT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보다 한 단계 낮은 것들을 가져가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지역의 특산품을 중간업체가 많이 떼니까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 직거래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하면서 먹거리라든지 수공업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생활할 수 있게 했어요.”

(7) 북한청년을 지역전문가로 육성

- 한국 청년이 아닌 북한 청년을 해외로 보내 지역전문가로 육성. 헌법상 북한 청년도 한국 국민이므로 북한 청년의 해외파견 지원. 혁신가로서 개발을 배우고 돌아와 남북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할 때 장기 목표 중 하나가 북한 청년을 해외로 보내는 거였어요. 브릿지 사업은 남한의 청년을 아프리카에 보내서 절대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배워서 오라는 컨셉이에요. 재원이 삼성하고 코이카에서 나오고 액수가 1년에 10억이었는데 총 3년 하다가 교육부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조선족도 되고 탈북자도 되고 다 됐어요. 그 사업은 지방대 문과 출신의 한국 대학생을 뽑아서 지역전문가로 키우려는 사업이에요. 2년 동안 동네 마을에 살면서 친해지는 거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역량 있는 그룹이 생기니까 각자의 주축그룹으로 만들고 그 친구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우린 정보 주고 그게 세팅이 되면 한국에서 사업비를 줘서 동네 개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2년은 동네를 벗어나서 기업에 들어간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NGO를 간다든지 해서 총 4년이 지나면 그 지역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원했던 건 청년과 청년이 연결되어서 시너지가 나와 진짜 개발이 나온다는 것이었요. 북한 아이들도 해외로 나가 보고 배우고 돌아와서 혁신가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브릿지를 하고 국내 브릿지도 하자. 2, 3년씩 시골에 내려가서 하고 나중엔 북한 청년들을 보내고, 잘 되면 브릿지 사업을 정착시켜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나가고,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움직였던 거죠.”

(8) 평화 관련 예술사업

- 북한의 소상공인과 남한의 예술가를 연결시켜 북한의 오래된 간판이나 메뉴를 무상으로 제작. 예술가가 사회문제 해결 주체가 되어 남북한 주민의 개별적인 만남을 주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감대 형성

“예술가가 사회문제 해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와 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예술가를 연결시켜 오래된 간판이나 메뉴판을 예술가가 만들어 주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틈새시장인 게 인테리어 업체들이 못 해주는 부분 이더라고요. 서울시와 하면서 성과도 좋아 올해 자치구로 확대가 됐어요. 13개 자치구로 확대가 되어서 현재 250명 예술가와 500개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술가가 사회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술가가 더 신이 났어요. 캔버스에 작품을 그려도 1년에 몇 작품 못 파는데 활동으로 급여처럼 돈이 나오는 사실에 고무됐어요. 예술가들이 이 사업을 북한에서도 하고 싶어 해요. 컬러풀 로컬이라고 사업명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개별적인 만남이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술가들이 소상공인이나 필요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어떤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처음 시작이 스토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스토리를 들어야 그 가게 사정과 필요를 알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 한국의 레트로 유행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폰트 개발. ‘천리마’, ‘뽕글’, ‘청봉’ 등 북한 글씨체가 젊은 세대의 취향을 겨냥하고 있어 새로운 디자인 사업으로서 가치 있음

“북한 폰트가 요새 뉴트로에 맞게 트렌디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북한 디자인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 학습을 한 적은 있어요. 북한 자체가 요즘 복고유행에 맞아 미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어요. 사례는 생각나는 건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 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잘 모르지만 디자인회사가 따로 있지 않을 텐데... 사업적인 뭔가 당장 할 순 없을 것 같고 예술 쪽으로는 공동 작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획하고 북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면 좋겠어요.”

- 평화 관련 뮤직 페스티벌 개최. 평화라는 이슈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음악과 접목해 국제 페스티벌로 개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이슈를 던져주며 남북한을 동시에 여행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제가 하고 싶은 건 동아시아적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DMZ 서밋이나 파리 피스포럼 같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실제 DMZ를 들여다보고 평화도 들여다보는 동시대적인 무언가를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3개월짜리 시즌 페스티벌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실제로 페스티벌이 열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배낭 메고 구경하러 오거든요. 아시아의 이것은 꼭 봐야 하는 페스티벌이 되어서 DMZ 투어도 연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로. 만약 기차가 뚫린다면 외국인들에게는 남한도 갔다가 북한도 갈 수 있다는 특수함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 철원, 고성 같이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행사 또는 페스티벌 개최. 실제로 2017 년 해외 뮤직 페스티벌 기획자들이 DMZ 를 방문한 후 평화를 노래하는 페스티벌을 제안. 현재 DMZ Peace Train Music Festival 은 철원의 주요 통일 사업이 되었으며, 페스티벌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노동당사, 월정리역도 방문해 전쟁의 위협을 체험하고 있음. 사업진행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전략적으로 수행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2017년 50여 분 해외 초청자들을 모시고 DMZ를 가보자 해서 10명의 기획자가 DMZ 를 방문했어요. 돌아와서는 DMZ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페스티벌 만들어보라고 제안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페스티벌 기획자들은 다 베트남에서 반전 활동을 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등 분쟁지역에서 음악의 힘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 세계 페스티벌이 상업적이고 헤드라이너에 목매고 있는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공공음악 페스티벌을 만들어보려고 시작되었어요. 노동당사, 월정리역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철원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퍼포먼스를 만들었어요.”

(9) 평화 관련 문화사업

- 남북 청년들이 공동으로 요식업 사업을 진행. 2018 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냉면에 관한 남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음. 평양냉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SNS 를 통해 평양냉면지도를 공유할 만큼 이른바 ‘평양냉면 마니아’들이 생겨날 정도.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평양냉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공동 식당 개업

“남북청년 식당을 만드는 거였어요. 실제로 계약금까지 냈다가 못하게 되었는데 남북청년이 5 대 5 비율로 셰프가 되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통일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요식업 분야 전문성도 없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엔 못했어요. 통일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걸 언젠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적인 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양냉면 마니아들도 많고 맛집도 찾아다니니까요. 옥류관도 이번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후기를 찾아보잖아요. 식문화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나 일이 있다면 통일에 관심 없는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문화를 기반하고 있어 접근하기 쉬운 거로 생각해요.”

(10) 남한지역 통일 관련 문화사업

- 남한의 각 지역에 통일, 평화를 주제로 한 복합공간을 설치해 운영. 책을 통한 통일교육이 아닌 영상,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통일교육 제공

“통일을 주제로 한 복합공간,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대전에 통일관이 있는데요. 외곽에 있는 걸 도심 속으로 옮겨서 프랑스 문화원처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 교육, 책을 볼 수 있는 북한문화원을 도심에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변화된 북한 과학기술을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고 있고요. 대전에선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4D 영상관을 만들었어요. 저는 통일관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문화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 평양 전시회 등 북한 콘텐츠 관련 전시회 개최. 북한의 도시를 간접적으로 접해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연구를 활성화시켜 북한문화에 대한 흥미도를 높임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도시전시예요. 국내에서도 로컬이라고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목포 전시회, 평양 전시회 등 도시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책도 사서 읽고 자료도 보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평양이나 북한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목포, 전주 전시회로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처럼 평양에 관련된 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 무용가 최승희 전시회를 했어요. 최승희라는 무용가가 월북했기 때문에 후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자료를 참고했지만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문화적으로 중요하지만 단절된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 쪽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연구가 이루어지면 학계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최승희 전시회를 할 때 나는 무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두려웠지만, 비전문성을 질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도록을 요구하는 연락이 정말 많았어요. 이 정도로 국내에 자료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같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플로그인이나 칠석대 같은 작은 이벤트로 지역이 변화하는 걸 봤거든요. 뽕 느낌 나는 디스코파티처럼 하더라도 북한 소재로 꾸민 디스코텍을 만들어서 북한 문화를 재밌어하는 행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비 더 피스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평화음악회를 하면서 광장에서 명상하기도 하고서로 교감하는 자리를 도시 한복판에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북한 사람들이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는 캠페인을 먼저 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지원 또는 선결조건]

(1) 안정적 토대 마련

- 기본소득이나 정책적 보장 등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

“대북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본소득 제공해줘야 해요. 제주에 있는 더큰내일센터처럼 하는 거죠. 로컬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서 컨설팅도 하는 거죠. 더큰내일센터 같은 걸 지자체든 정부든 누군가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안정하잖아요. 개성공단도 문을 닫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보장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국제정세 등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단으라고 해도 할 수 없도록 계속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정권이 바뀌면 불안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나온 벤치마킹 사례로 아쇼카 펠로우가 있음. 아쇼카 펠로우처럼 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일정기간 투자해 새로운 문제접근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도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을 옮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낯설 테고 무서운 면도 있을 테니 최소한 주거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다림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책정의 낮은 인건비 말고 일반 회사의 월급 정도 되는 비용을 줘서 그 친구들이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스펙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토리를 평가했으면 좋겠고 인내 자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쇼카에서 변화를 만들려는 사회 혁신가들에게 활동비를 주면서 멈추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쇼카 펠로우]

- 1980 년 뛰어난 사회혁신기업가(Leading Social Entrepreneur)들을 발굴하기 위해 세계 85 개국에서 3,600 여명을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 아쇼카 재단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즉 프로젝트를 행동으로 옮겨 현실화하려는 사람에게 투자
- 누구라도 체인지메이커로서 역량을 발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
- 2017 년 기준 교육(16%), 인권(18%), 시민참여(17%), 환경(11%), 경제개발(20%), 건강보건(16%) 분야에 투자
- 한국에선 2013 년 3 월에 출범 후 13 명을 지원
 - 이수인(교육, 2017 년 선정):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 배움을 중단하지 않도록 동기부여하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
 - 송하나(인권, 2016 년 선정): 탈북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탈북 난민 구출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인들의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력 높임
 - 정혜신(건강보건, 2014 년 선정): 정신과 의사 출신으로 고문피해자, 집단해고노동자 및 가족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 경험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어 개개인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서명숙(경제개발, 2013 년 선정):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변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사단법인 제주올레 설립. 친환경 여행 코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경험하고 문화, 자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키워 지역사회와 외지인 사이 상호작용을 가능토록 함

- 신용대출을 통해 남한청년 또는 북한주민이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그라민 뱅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열리면 무담보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갖게 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실험했던 기본소득 관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극우단체와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어요. 일정 금액을 줬을 때 어떻게 할까 보니 그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산수단을 사는 데 쓴 거예요.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남측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소액투자형식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라민 은행]

- 1983 년 방글라데시에 설립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 대출 은행이자 사회적기업. 고리대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방글라데시 시민을 위해 신원보증없이 하위 25%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준 뒤 이자를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도록 하는 소액 장기처리 신용대출 은행
- 현재 방글라데시에 1,175 개 지점을 두고 미국, 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퇴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 은행은 돈을 갚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의 신용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상환율은 연평균 90% 이상
- 고금리 대출로 서민 죽이기라는 비판 또한 존재

(2) 벤처 운용방식 적용

- 북한 사업을 벤처처럼 운영. 모 대기업은 사내벤처를 이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비록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복귀 및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함

“회사들이 많이 하는 게 사내벤처 운영이에요. 신사업 발굴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게 보통인데 사내벤처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아요. 정부가 반을 내주는 거로 알고 있고, 사내벤처가 잘 되면 독립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면 회사가 인수하지 않을까요. 사내벤처를 운영하면 독립성이 보장되고 자율권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도 원래 소속팀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나가서 1년 안에 사업이 진전이 안 되면 재입사도 가능해요.”

- 사업계획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장기간 거주를 지원하고 지역개발 할 필요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터전을 옮겨서 그곳에서 일할 청년들을 모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은 빼도 박도 못 하게 했으면 좋겠고 뭔가를 구상해서 가는 게 아니라 3년 중 1년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지역개발이 맞는 거 같아요. 지금도 도시재생이란 이름 아래 서울에서 지역을 알지도 못한 채용업체들이 내려와서 지역을 망치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 북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연변 등)에서 사업경험 또는 작은 실험이나 실습을 할 수 있게 지원

“유사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북한 사정을 모르니까 유사한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연변에 가보니 환경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통일되고 자본이 풀려 북한이 개발되면 딱 그 모습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일 후 북한의 도심지 전형이 되지 않을까. 연변에 와서 해본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그 친구들이 북한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특구 경험장으로서 전략지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브릿지 할 때도 비슷한 거 있어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 훈련하지 말고 아프리카 내 한 마을로 전부 보내서 아프리카를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자의 나라로 가는 거고. 북한을 들어가기 위한 거점이 될 만한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실험장이 있어야 할 듯하고.”

“청년들이 개발 협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 실습 기회제공을 해주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개발 협력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정보제공도 어려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으로 느낄 기회가 필요하겠죠.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코이카 인턴 시스템을 응용해서 대북지원현장의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작은 실험이나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가 있어야겠죠. 북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싶다면 경험을 계속 제공해야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6차산업 분야, 1차 2차 3차를 섞은, 한국에서 어떤 6차 산업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북쪽 특정 지역에 모델 사업으로 시험해보는 거지. 남북이 연계될 수 있는, 해주 연안 농장지대에 만들어지는 농산물을 어떤 형태로든 가공해서 현지 밀착형 식료품제조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보리를 심어서 지역 맥주를 만들어서 관광화하든지. 접경지역에서 50킬로미터 정도 되는 데를 하루 잠자지 않아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농원관광을 만들어 온천이라도 하든지. 아님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6차 산업을 통행이 가능한 곳에서 하든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여행산업을 하든지.”

(3) 통일 및 평화 관련 교육 진행

- 현 20 대, 30 대 초반은 북한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왜곡된 북한 인식을 갖고 있음. 남성의 경우 군대에서 받은 교육으로 북한과 안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졌으며, 여성의 경우 영화나 체험을 통해 북한을 접함. 2019 년 현재에도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1990 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의 ‘꽃거지’일 정도. 기초교육과정에서 북한, 통일 및 평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제가 장교 출신이어서 소위 군대에서 말하는 대적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북한하고 많이 달랐어요. 주적은 북한군과 노동당이지 일반 시민이 아니었어요. 평상시 북한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군대 가서 북한에 대해 교육을 받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상대적으로 진전되어 있는 대적관 학습해서 민간에서보다 풍부하게 교육받았어요. 북한과 남한 사이에 사회구조 유사성이 있다는 걸 그 때 인지했습니다.”

“저는 백두산이랑 금강산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금강산 가기 전에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컸어요. 되게 겁도 나고 무서웠죠. 갔을 때 오히려 북한군들이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농담을 주고받았고 금강산에 있는 직원들이랑 얘기도 해서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인식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니까요. 통일부가 있지만 전 통일부에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통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초중고 때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북한용어에 대해 배운 건 기억하는데 그거 외 문화적인 부분을 방송 매체에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중앙부처나 기관들에서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접하면 좋지 않을까요.”

- 공익성 짙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남한 내 인식변화 일으킬 필요. 과거 MBC의 ‘느낌표’는 외국인 노동자 생활, 청소년 가출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으며, 각 코너의 이름을 “~합시다!”로 정해 적극적인 시청자 참여를 유도함. 또한, 최근 교양 영역에서 다뤄지던 여행 프로그램이 예능에서 다뤄져 관광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 방송을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필요

“생각을 해봤는데 4차산업혁명을 연구하는 인턴한테 영국 갈래 북한 갈래 물어보면 사람들은 북한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이 부정적인 것만 심어줬으니까요. 예전처럼 느낌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베트남이 뜬 이유는 연예인들이 베트남에 놀러 가는 여행프로그램이 나오고 그곳에서 사는 한국인 인터뷰가 나오고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다는 뉴스를 틀어주니까 베트남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고요. 남한 젊은이 북한에 대해 인식하는 건 미사일이니까 시장이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 다양성, 타문화 수용 관련 교과목과 훈련 제공. 세계시민에 대해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습기회 제공

“문화나 타문화 훈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일반 대학생 대상 교양수업에서 수업하는데 그 업계에는 익숙한 이슈이지만 아이들은 처음 듣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ODA 단어도 대부분 처음 들어요. 타문화에 대한 수업이거나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자세를 바꿀 수 있는지 그 훈련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게 되어있으면 내가 남을 돕는다는 생각에서도 가치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난민 이슈같이 기존 장벽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해 남북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서포터즈를 만들어 만남의 기회 제공

“북한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물어보고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보내서 일대일 멘토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재밌을 거 같아요. 남극기지도 요리사, 동물조사원 등 팀을 이뤄서 가니까 그것처럼 여러 전공자가 팀을 만들어서 가면 시너지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금강산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조직해서 청년들이 가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큰 변화가 될 거 같고요. 여행상품을 기획하게 되면 정치성이 약한 문화예술 위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발굴해내면 좋겠죠. 개성 유적지에 가서 같이 배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쌍방이 원가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도 있고요.”

(4) 재미와 이익 보장

- 최근 “힙하다”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새롭거나 특이한, 남다르고 날 것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 2030 세대는 주류 문화와는 다른 독립적인 대항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세대를 끌어올 수 있는 재미를 찾아야 함. 혹은 정확한 이익을 줘 하나의 확실한 스펙이 되도록 보장할 필요

“미래를 보장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재미. 세 번째가 될 거라는 확신. 공무원들이 청년세대를 못 잡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플로깅 사업을 한강사업본부와도 하고 볼보와도 했어요. 볼보는 시키지 않아도 매진이 다 돼요.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때는 100% 봉사증 줄 때만 애들이 와요. 정말 재밌게 트렌디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피드백이 돌아오든지,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통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랑 사드나 지소미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어린 애들은 사드나 지소미아에 대한 공감감이 없어요. 이미 북한은 적이에요. 정토회 사람들 외 보통의 대학생들 만났을 때 80~90%가 그래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주든지 해야 해요. 아이들의 문제의식은 다 북한으로 가 있어요. 북한을 겨냥해야 하니까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놀랐거든요.

청년은 무조건 자기한테 도움이 되어야 해요. 당장의 이익이 되어야 해요. 봉사증이 나온 다든지 돈이 된다는지 특별한 레퍼런스가 되어서 자기 가치실현이 되든지 세팅을 해줘야 해요. 그게 진짜 확실해야 해요.”

“젊은 세대에게 페스티벌에서 뭔가 느끼고 가시라고 강조하는 게 불편하니까 재미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되 온 김에 DMZ에 들어가 보고, 온 김에 깊은 평화를 만나볼 수 있게 선택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요. 평화와 통일은 너무 거대 담론이고 대의의 거리가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이명박 정권 때 저항하는 상상력으로 ‘북조선 핑크록 리성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북조선에 핑크록 가수가 있었으면 이랬을 것이라고 가상 인물을 만들고 탈북자와 인터뷰해서 그걸 기반으로 북한의 서브컬처를 만들었더라고요. 소련에 가서 어떻게 음악을 접했는지 상상하면서 10팀 정도가 연대기랑 음악을 다 만들었어요.”

“통일이나 평화는 너무 큰 이슈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양에서 냉면을 먹어보고 싶다거나 하는 작은 부분들. 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면 통일의 이점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북한은 너무 추우니까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다거나, 양양보다 좋은 서핑도시가 있다거나, 기차 타고 포르투갈까지 갈 수 있다거나 이런 상상들이 많아져야 해요. 이제는 대의 하나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뻑뻑하고. 이제는 민족이란 표현도 안 쓰니까 나한테 좋은 게 뭔지, 내가 재밌는 게 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민족이라는 것과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좀 더 재밌어야 할 거예요. 예전에 통일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내걸었던 현수막 이름이 ‘즐거움통일’이었거든요. 보드게임을 만들었 듯이. 저희가 한 건 뭐였냐면 내일로 티켓처럼 통일이 되면 스티커를 붙여서 여행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재미나게, 내가 관심을 가질만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부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건 단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상상력을 깨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5) 태도 및 제도적 준비

- 북한 청년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이 아닌 당사자인 북한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해준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될 것 같아요 중심이 북한 청년이 되어야 하고요. 정부나 지자체가 하면 실적 내기 위해서 우리 청년이 무얼 했느냐에 집 중하거든요. 북한 사업은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야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가능성을 위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은 끊기는 순간 그걸로 끝나지만 수많은 국제개발 경험을 보면 너희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하면 된 다는 거죠. 참고로 브릿지 사업에서 잠비아에 간 친구는 절대 일을 주도하지 말라고 하니가 가져간 카메라로 영화를 찍어서 잠비아에서 상을 받았어요.”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으로 그들이나 청년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민족이 긴 했지만 분단된 채로 살았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어도 이제 아주 다르고요. 첫 번째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들을 가르친다거나 변화시켜야 하는 교화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자체들은 청년들한테 너희가 가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개발국가에 무엇을 주고 온다, 우리가 가르친다,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일제식민 지 시대 때 생각과 무엇이 다르냐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평시에 프로젝트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 기업이 기반을 다 들고 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주체가 협동조합이 됐든 주민이 됐든 연결을 매개하는 사업으로 가야지 지금의 상품으로는 맞지도 않을뿐더러 오래가지 못할 거 같아요.”

- 교류의 과정을 영상물로 기록하는 등 아카이빙 할 필요

“교류한 흔적이 아카이빙 되지 않으니까 어떤 루트로 어떻게 갔는지 남아있는 사례도 없 어요.”

“이 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약간의 중기 계획을 백서처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아카이빙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영상화한다면 팬츠는 다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서부터 모든 걸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서울시 주도의 남북교류, 평화경제 분야 사업 시도 필요

“서울시에 육류관을 지어도 될 거 같은데요. 용어도 바뀌어야 하겠죠.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안보라는 말 대신 평화 관광으로 알려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작년에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을 세웠거든요. 그걸 세웠더니 모든 지자체가 그걸 보고 따라 해요. 서울이 힘이 있거든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서울시가 평화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거죠.”

- 금강산 관광 재개 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사업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 또한 한 기업의 독점이 이뤄져서는 안됨.

“한 대기업 주도적인 형태는 되어서 안 돼요. 현대는 자기네가 독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현대 아산에 현대 건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설 마인드가 강했어요. 가격 측정할 때 개성 2박3일 가는데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측정해 줄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저항력을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 형태로 가니까 왜곡이 많이 돼요.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상품으로만 만들고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학여행 지원 형태로 가게 됐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왜곡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현대가 하는 게 문제고 현대가 하는 패키지 형태도 한계가 존재할 것 같아요. 1998년에 오픈했을 때도 신기하니까 처음에 갔지만 나중엔 안 좋아졌거든요. 걱정되는 건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금강산 관광이 오픈된다 해도 또 이 상황에 직면할 거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3박 4일 크루즈 여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지금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 이런 게 7박 8일에 150만 원이면 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갔다 왔던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상품에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산만 다녀오고, 북한에 가서 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만 운정각, 조선족만 보고 북한 주민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내원만 보니까 상품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정착되기 전까지는 상품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시장에 맞출 수 있는 상품은 아닌 거 같고 청년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6. 결론

1) 인터뷰 소결

[만남, 우연한 기회가 만든 변화]

- 인터뷰 참가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우연히 만났거나 우연한 기회로 DMZ 를 방문하면서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 만나고 나니 편견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와 연결이 시작되었다는 것. 생각과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고 그를 통해 배움과 공감대를 만들
- 기존 방식 또는 경제적인 동기로 평화경제, 교류 사업에 들어가면 접근하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눈에 띄. 결국 유네스코 국제개발 사업과 같은 완충재를 중간에 두고 청년들이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 만남은 공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편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줄 수 있음. 이를 통해 마음의 장벽이 사라지고 변화와 관계 맺음이 시작
- 북의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상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 이들의 관심과 열정을 채워줄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 특히 북한과 직접 교류했던 경험 있는 국내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

“평양 대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어요. 평양외국어대학 일본어과 학생들은 최근에 일본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북한 학생들이 일본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큰 변화예요. 그 전에는 감히 일본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지도자가 바뀐 뒤 일본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하면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가 많았어요. 올해에는 대학생 워크숍에서 어떤 학생이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겠냐?’는 질문에 EU 처럼 동아시아 사람들도 여권 하나만 있으면 자유롭게 왕래하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답변이 나올 거란 상상은 하지 못했어요.”

“(일본인 인터뷰) 최근 북한 청년들과 교류에서 그들이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 연락을 한다면서요. 정말 큰 변화예요. 일본 학생들은 자기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서로의 일상생활을 밀도 깊게 공감하고 싶어요. 같이 먹고자고 생활하는, 양국 간 교류 홈스테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 교류뿐만 아니라 교류의 과정과 내용, 결과를 어떻게 잘 공유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법이 필요. 특히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의 경험, 청년 세대의 경험으로 개인의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

[북한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남측 내에서의 교류와 평화도 중요]

- 정치나 경제와 같은 체제/제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까지도 염두에 둔 정책제안이 많음. 제도적 통합은 차치하고라도 사회문화적, 정서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대답들이 많음
- 인터뷰 동안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음. 어떻게 보면 통일보다 평화라는 주제가 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평화를 보다 진지하고 우선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예를 들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70 년 동안 분단되어서 살아왔는데 인제 와서 그걸 굳이 합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도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지금 한국에서도 남녀, 세대, 좌우가 양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한 극이 더 생기면 그게... 상상이 힘드네”라는 의견은 대부분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을 듯함. 같은 체제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가치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고 일부에서는 매우 극단적이고 이질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목표로 어떤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비현실적 목표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저는 작년 공익재단에서 러시아를 방문했었고요. 거기서 통일이 먼저인지 평화가 우선인지 깊이 있게 청년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통일이 먼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토론을 직접 하다 보니 평화가 우선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전환됐어요”

-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청년세대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유연한 평화를 주제로 한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고 필요할 수도 있음

[북한을 매개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일본, 더 나아가서 아시아 평화공동체와 맞닿아 있는 이슈임. 평화경제를 테마로 남북일 청년 간 아시아평화공동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일 것

“일본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사실상 제약이 없습니다. 북한이 비자만 내주면 어떤 목적의 방문이든 일본 정부의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가 강도 높게 시작된 다음부터는 지원을 할 때 일본 정부에서 경고 연락이 와요, 현재 UN 제재 중이라 민간단체의 지원이 일본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식으로요. 그런 건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모금이 되질 않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일본의 개인이 규모 있게 후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전범으로서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적 관점에서 하는 개인이 있고, 동북아 평화에 일본이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하는 개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인들은 현재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은 소수뿐이며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서 일본의 지원단체도 이들 신원을 대다수 모릅니다.”

“북한 사람과 일본 사람 둘이서만 만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남한 사람, 재일조선인 등이 함께하는 교류가 되어야 시야가 넓어지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연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

-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여러 방식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개인적 필요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 가치와 참여, 행동이 중요한 세대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필요 또는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행동에 나설 필요는 못 느끼는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을 반영된 내용이 있음

[평화경제를 담당할 청년 인재, 주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지]

- 본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재육성 파트. 통일운동의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통일박람회에 참가했다는 한 응답자는 “박람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최소 연령이 50 대”라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함. 안타깝게도 이는 농담이 아닌 현실. 700 억원의 후원수입을 가지고 있는 한 비영리단체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함. 145 개의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북한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 참여자가 대부분 고령자뿐이라는 것. 결국 새로운 인재를 어디서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임
- 평화경제, 청년참여를 위해서는 사업 아이디어/모델뿐만 아니라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 대기업이 들어가서 턴키로 일괄 재개발하는 방식의 접근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성장과 필요의 충족, 남측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민을 해야 함
- 북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북한 주민과 같이 만드는 사업이어야 함. 즉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의 방법론도 북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물론 개별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북한 정부가 이와 같은 방법론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나 기본적으로 현지 주민 또는 현지 조직과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그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준비. 안타깝게도 평화경제 영역에서는 그러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듯 보임. 이제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의견 중 하나가 “북한 사업은 우리에게는 통일의 과정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는 국제개발 사업”이라는 것. 저개발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국제개발 사업이라는 면에서 국제개발을 경험해 본 인재를 많이 육성하고 국제개발 경험 있는 인재를 평화경제 분야에 유입시키려는 기회가 필요
-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평화경제를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면서 장기집중교육이 필요. 북한사업이 매우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만은 아님. 북한에서 평화경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법, 제도, 관행 등이 낯선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 여기에 더해서 현실에서 북한의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며, 북한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 남측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지속가능성 등 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기본소득’은 인터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 하나.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기본소득 이야기가 평화경제 분야에서 나올 줄을 예상하지 못했음. 이는 리스크가 매우 큰 대북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됨

[지속가능한 가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 어떻게 난개발을 막고 북한이 가진 천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청년들과 함께 평화경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중요한 부분. 세간의 인식과 달리 DMZ는 군부대가 시야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불을 놓았던 곳. 즉, 생물다양성이 원시림 수준으로 보호되지는 못했음. 그럼에도 60년 이상 인간의 접근이 금지된 생태계는 거의 없음. 최재천 교수에 따르면 남북을 잇는 지상도로와 철로는 연결하는 순간 DMZ 생태계는 보존될 수 없다고 함. 이런 면에서 북한의 평화경제를 고민할 때 UN SDGs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최재천 교수는 7~8년 전부터 공중관광도시를 주장했음 DMZ 위로 남북을 잇는 4km 짜리 고가도로를 4~5km 간격으로 두 개를 만들고, 두 고가도로 사이에 투명판을 놓아 중간에 구멍도 뚫어 공기와 햇빛이 그 아래로 들도록 하고, 투명판 위에는 호텔을 짓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음

- 북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경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보다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지와 주민과 사회, 환경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 지식이 있고 공감대가 있어야 적절한 해결책에 도출되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
- 이런 면에서 국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홀리스틱 접근법. 즉, 저개발국가에 환자가 많은 것은 영양부족, 낮은 주거환경과 교육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병원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 북한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은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기근, 경제난, 대북제재, 환경파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남북 모두를 위해서 북한의 평화경제를 고려할 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 결국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상생을 그리고 북한이 처한 문제 해결을 상징하고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미래를 상상하는 공간으로서 벤처 벨리 사업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클 것임
-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됨. 결국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과 열정이 있는 청년을 발굴해서 이들이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접근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함. 북한이 낙후되었고 우리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우리의 편견, 평화경제 사업은 남북 모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업을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으면 독일통일 과정에서 남은 양금, ‘동독주민=이등 시민’이라는 편견이 자리잡게 될 것

[평화에도 기획이 중요: 구체성/현실성/실용성/재미/평화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

-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상과 기획이 필요함. 이는 단순히 기획의 문제만은 아님.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고 이들과 새롭게 기획을 해서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음. 그래야 재미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일 것.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 수 있을지]

- 제도적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만 평화경제 사업을 통해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즉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한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 북측이 가장 꺼리는 방식이 이벤트 성격의 프로젝트. 즉 이벤트성 프로젝트로는 북한과 교류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초기 국면에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북한에서 평화경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성공률'이 더 높을 수 있음
- 다른 한 가지 이슈는 북한은 가급적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원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소규모 비즈니스는 북한과의 평화경제 사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등 정부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물론 민간 주체들과 협의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함), 해당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소규모 주체/기관들이 참여하는 구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도심 RPG 부터 대북 의료지원, 생태, 전통문화, 홍보물 제작, 안전을 주제로 한 웹툰, 지적재산권, 페스티벌, 공정관광, 쿠킹클래스, 남북청년 공동창업 식당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채로운 사업아이디어들이 쏟아졌음.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기획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들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행정에서 지원체계를 잘 갖출 필요 있음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북한을 신기루 같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불가할 것]

- 북한은 언어는 같으나 제도와 관행, 시스템이 다른 '해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를 세심하게 해야 함. 거의 완벽한 관료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사업에서 초기 단계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음. 예를 들어, A 라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평화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업성이 좋지 않아 B 로 전환할 때 북측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젊은이들이 뛰어 들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

- 평화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앞서 언급했던 기본소득. 북한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평화경제를 한다는 것의 심리적 불안감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 아쇼카 펠로우 또는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하고 있는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을 통일분야에도 적용하여 인재육성과 성공사례를 만드는 시도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됨

- 평화경제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평화경제 분야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고려할 필요.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평화경제분야 사내벤처 창업에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설계하면 청년참여 활성화의 좋은 방법일 될 수 있을 것임
- 북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제안부터 정보제공, 아카이빙, 재정지원이나 프로젝트 공모 등 사업기회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제시
- 민간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서울시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과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기도 함. 그만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 이런 차원에서 평화경제 분야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변화, 시도가 필요

2) 제안

-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평양의 아파트는 최고 10 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신의주도 2 만 달러 내외로 거래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며, 나선시의 경우 국가소유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함 (자유아시아방송, 2019.3.24, ‘북 라선시, 주택사유화 정책 시행’). 뿐만 아니라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600 만에 이르고, ‘김정은 시대의 평양’에는 70 층의 컬러풀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고층 아파트 거리가 조성되어 있음.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이미 POS 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소매점에서 MADE IN DPRK 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IC 카드로 결제되고 민간(돈주)의 자금이 80% 이상이 투자된 민간상업은행과 이 상업은행들이 운영하는 ATM 기기들이 민간여신을 하고 있을 정도로 특정 지역(평양)이나 특정분야(건설, IT 등) 분야가 발전되어 있음
- 북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북한 변화상에 걸맞게 교류와 문호 개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해외방문과 개인적 교류에 대한 열망이 강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변화되는 사회경제제도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국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 중

- 평창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한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는 듯했으나 북미간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 역시 다시 갈등을 겪는 상황. 하지만 남북교류와 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변함없이 추진 중
- 남북 모두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며 평화경제를 함께 할 청년교류 신규분야 모델 및 청년세대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함. 이에 본 조사는 기본 조사와 함께 33 명의 청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정리함
- 인터뷰 참가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로 우연한 만남이나 교류 등의 기회를 통해 생각이 바뀌고 편견이 사라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배움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즉 통일운동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관심있고 활동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북한과 관련된 콘텐츠나 사람을 접할 기회가 생겼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연결된 것이 많았음

- 남북교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평화경제 사업을 ‘남에서 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 ‘도와주는 것’, ‘내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것’ 등과 같이 일방향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어린이 그림전 때문에 북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북한 초등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한 아이가 왜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리한테만 시키냐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옆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권유했어요. 북한 아이들은 모두 수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질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도 여러 편견이 있는 상태란 걸 알게 됐어요. 교류라는 게 쌍방향이어야 하잖아요.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데 단순히 부탁만 했던 나를 돌아보고 교류의 참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 또한 북한과의 만남이나 통일도 중요하지만, 남한 내에서의 교류와 평화도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시사점도 있었음. 가장 현실적인 고민으로 “지금 한국에서만도 남녀, 세대, 좌우가 양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과의 통일이러는 한 극이 더 생기면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결국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의 폭이 넓고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평화교류가 남측에서조차 동의 받고 지지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 또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북’이라는 존재가 청년 간에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해 가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에서 더 놀라움

“북한 사람과 일본 사람 둘이서만 만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남한 사람, 재일조선인 등이 함께하는 교류가 되어야 시야가 넓어지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제약이 없음. 일본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북한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일본청년들이 있음. 이들이 경험한 북한의 변화상을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많았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청년도 있을 정도라고 함. 즉, ‘북한’이라는 테마로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서는 북한 청년이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임
- “모든 것들을 할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가”라는 이슈로 귀결됨. 대북교류사업을 준비 중인 연간 700 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모으는 비영리단체 역시도 청년들과 함께 할 방안을 찾느라 고민을 하고 있음.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참여케 하는 것. 그 과정에서 필요한 리스크는 일정 정도 기성세대 혹은 서울시 등 제도권 기관이 부담해주면서 이들이 가급적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 이런 맥락에서 인터뷰 참가자들 입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 ‘기본소득’이 이전과는 또다른 상황에서, 평화경제 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2019 년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2019, (주)타임리서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1, 중소기업연구원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2017, 강원연구원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남북중 3 각 협력 모델 연구: 신의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2014, 중소기업연구원
남북청소년 교류 추진방향 연구, 2013, 한반도평화연구원
남북한 문화예술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2018,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 방안, 201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북지원 20 년(195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과와 과제, 2017, 문경연 외
북한과 GTI 경제협력 강화 방안,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014,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2018, 서울연구원
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 방안, 2017, 새로운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보고, 2018, 남북협력추진단
유엔 기후변화 대응매커니즘을 활용한 남북 경험 방안 연구, 2014, 기후변화센터
제재속의 북한 경제, 2017, 세종연구소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 특구전략에 관한 연구, 2017, 남북경제연구원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2017, (사)한반도평화포럼